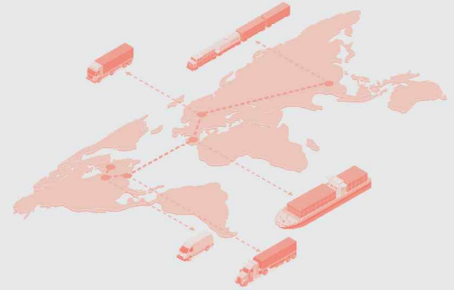




러-우 사태 3년차, 변화된 러시아의 교역구조 및 시사점

러우 사태 3년차, 변화된 러시아의 교역구조 및 시사점



목 차

제1장 서방의 최근 대러시아 제재 현황	6
제1절 부문별(에너지·금융·물류·수출입) 대러시아 제재 현황	6
제2절 러시아의 제재 대응 현황	17
제3절 2023년 러시아 경제 진단	24
제2장 러시아의 교역구조 재편	26
제1절 對우호국(중국·인도·튀르키예·브라질) 교역구조 변화	26
제2절 對비우호국(미국·일본·EU·영국) 교역구조 변화	40
제3절 對EAEU국 교역구조 변화	52
제3장 비제재 품목 중심 우리기업의 수출 고려사항	60
제1절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현황	60
제2절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구조 변화(2023년)	63
제3절 대러시아 수출 고려사항	67
제4절 품목별 대러시아 수출 고려사항	71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77
제1절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러시아의 교역구조 변화	77
제2절 포스트 러-우 사태와 러시아 시장의 전략적 가치	79

요 약

□ 강화되는 대러시아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 서방은 기존 제재를 보완하는 한편 2차 제재 강화 및 제재 대상 지속 추가 등의 방법으로 제재 강도를 심화 중
 - * 석유·가스·석탄 수출 견제(에너지), 제3국 금융기관 제재로 국제결제 차단(금융), 항구·조선소·해운사 제재(물류), 대러시아 수출·수입 금지 품목 확대(수출입)
- 러시아는 △에너지류 대체 수출시장 활용, △대체 물류노선 구축, △우회 수입·수출로 제재 회피·극복 지속 노력
 - * 중국·인도·튀르키예로 에너지류 수출, 북극항로·국제남북운송회랑 개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활용한 상품·자원의 우회 수입/수출
 - **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3.6%(’23년), +5.4%(’24.1분기)로 비교적 양호
- 한편, 종전(終戰) 혹은 러-우 사태 안정화 단계에도 △에너지·금융 제재(군비 축적 견제), △이중용도물품 수출제재(군사력제한) 등 러시아의 서진을 견제하기 위한 서방의 제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

□ 변화된 러시아의 대외교역 구조

- 러시아는 러-우 사태 이후 우호국과의 교역을 대폭 확대*하고 중국과 함께 BRICS 중심의 경제블록을 주도
 - * 중국(+63%), 인도(+458%), 튀르키예(+63%), 브라질(+55%) (’23/’21)
- 비우호국과는 일부 에너지류 수출(가스·비료 등) 및 의약품류 수입 외 유의미한 교역이 없거나 수출입 급감
 - * 미국(△86%), 일본(△52%), EU(△67%), 영국(△97%) (’23/’21)
- 對러 우호국은 이해 관계에 따라 對러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지만 2차 제재의 확대는 걸림돌로 작용, 러시아 또한 △수입대체화의 조기 실현, △독자 물류노선 개발 등 자립화 박차

요 약

□ 러-우 사태 장기화 속 러시아 시장이 갖는 의미

- 1.4억 인구(EAEU 전체 1.9억 명) 및 구매력평가(PPP) 세계 6위의 거대 시장, 과거 자동차·전자·건설·조선 등 기간산업에서 한국의 진출이 활발했었고,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분야에서는 여전히 진출이 활발한 시장으로 사태 종식 이후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시장
 - * 러-우사태 이전('21년)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교역국(273억불)이자 12대 수출시장(100억불)
- 에너지수출, 상품수입, 정치·안보적 관계에서 對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극동러시아 개발, △북극항로 활성화, △수입대체화(제조업 육성) 실현을 위해 한국은 중요한 국가

□ 포스트 러-우 사태 대비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

- 수출 지속 품목* 수출 확대, 의약품·의류·화학제품·콘텐츠 등 비제재이지만 진출이 유망한 영역 수출 강화 및 △A/S 서비스 지속,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각화, △OEM 수주 등 통한 기진출 기업들의 비즈니스 지속
 - * 화장품(+42%), 윤활유(+31%), 타이어(+28%), 의료기기(+17%) 등 ('23/'21)
- 물류제재 · 흑해 이용제한 · 대유럽 육로차단 속 북극항로 개발이 절실한 러시아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쇄빙선·운반선 건조 기술을 지닌 한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파트너
- △지리적 이점, △서방국의 대러시아 자원류 수입 제재 속 석탄·LNG·광물·수산물 등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경제 안보 확보에 기여
 - * '23년 한국의 대러 무연탄 수입액은 4.6억 달러로, 러시아는 호주를 제치고 1위 공급국
 - * '23년 한국의 대러 천연가스 수입은 10.6억 달러로, 호주·카타르 등 다음 7위 공급국

I

서방의 최근 대러시아 제재 현황

1

부문별 대러시아 제재 현황

□ 에너지/자원 분야

○ (원유·석유) 유가 상한제 모니터링 강화, 2차 제재 강화

- (미국·호주·영국)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유지
- (EU)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단계적 중단 선언('22.5) 이후 점진적 수입 감소, 유가상한제 위반 선박의 EU 항구 접안 금지 조치('23.6)
 - * EU, 러시아산 원유(HS2709) 수입액 495억 달러('21)→100억 달러('23)
 - ** EU, 러産 석유제품에도 가격 상한제 시행('23.2)
- 또한, EU는 제 14차 대러시아 패키지에 러시아산 원유·석유 우회 수출에 활용되는 일명 '그림자 선박' 제재 조치('24.6)
 - * 러시아는 추적이 어려운 노후 선박을 암암리에 매입하여 중국·인도 등지에 원유·석유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¹⁾
- (유가상한제 모니터링 강화) G7·EU·호주 등은 러시아산 유가상한제('22.12, 배럴당 60달러 상한)의 모니터링을 강화('23.12) 하였는데,
 - 가령, 미국은 2차 제재를 강화하여 UAE 해운사 Hennessea 소유 선박 17척 등을 유가상한제 위반 사유로 제재 명단에 포함('24.1) 시키는 등 제 3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 일본은 계약 기간 단위로 요구했던 '공급자의 유가상한제 준수 보증서'를 매 선적 시 마다 징구'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변경('24.2)
 - * 일본, 러시아산 원유(HS2709) 수입액 23억 달러('21)→0.5억 달러('23)
- (뉴질랜드) 유가 상한제에 신규 동참('24.2)

1) "Bloomberg сообщил о максимальной с мая 2022 года прибыли России от нефти."
<https://www.rbc.ru/economics/06/12/2023/65703b329a7947755e89af7f>. (검색일: 2024년 6월 4일)

- (가스) 주요 가스전·프로젝트, 운반선 제재 등 지속 중이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EU·일본은 수입 지속 중
 - (EU) 14차 대러시아 패키지에 러시아 수출업체들의 EU 내 항구 LNG 환적 금지 조치 (‘24.6)
 - * ’22년 EU의 수입 LNG 중 42%를 차지했던 러시아산 LNG는 ’23년 15%로 감소
 - 다만,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일부 EU 국가들은 대러시아 LNG 수입 지속 중
 - * ’24.2월 EU의 대러 총 수입액 11억 유로 중 러시아산 가스 비중은 6억 2천만 달러
 - 동시에 EU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입장²⁾
 - (프랑스) EU 국가 중 ‘24년 1분기 러시아산 LNG의 최대 수입국으로 1분기 수입액이 6억 유로를 초과³⁾
 - * ’24.1-4월 EU의 러 Yamal LNG 수입량은 전년동기비 5% 증가한 570만 톤으로 프랑스 Total사는 동 수입량중 220만 톤을 수입
 - (오스트리아) OMV(오 최대 에너지사는 러 産 가스 포기 계획 없다 언급(‘24.5)
 - * OMV-러 가스프롬 간 계약은 2040년까지 유효, ’23.11월 기준 오스트리아의 가스 수입 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6%⁴⁾
 - (그리스·헝가리·슬로바키아·이탈리아) 러 가스프롬으로부터 LNG 및 PNG 수입을 유지 중으로, 특히 그리스는 ’23년 러시아산 LNG 6천 6백만 톤을 수입, 총 가스 수입의 40%를 러시아산이 차지⁵⁾

2) “СМИ назвали лидера в ЕС по закупкам российского СПГ в 2024 году,”
<https://lprime.ru/20240411/spg-847297667.html>, (검색일: 2024년 6월 4일)

3) “Австрийская OMV сохранила контракт с «Газпромом»,”
<https://www.vedomosti.ru/business/news/2024/06/13/1043556-avstriiskaya-omv>, (검색일: 2024년 6월 4일)

4) “Греция хочет скидки на российский газ,”
<https://www.kommersant.ru/doc/6596822>, (검색일: 2024년 6월 4일)

5) “Novinky.cz: Чехия в январе существенно увеличила закупки российского газа,”
<https://www.kommersant.ru/doc/6494931>, (검색일: 2024년 6월 4일)

- (체코) '23.10월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이 적었던 체코도 '23년말부터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크게 늘림⁶⁾
 - (일본)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할린-2 프로젝트를 통해 천연가스의 9%를 공급받고 있으며, 22.5%의 지분을 가진 사할린-1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도 유지할 것이라 표명('24.4)⁷⁾
 - (영국·호주) 러시아산 LNG 수입 금지 유지 중(호주 '22.3, 영국 '22.10)
 - (미국) 금년부터 본격 가동이 예정돼있던 Arctic LNG-2 가스전에 대한 제재 강화, 동 가스전의 운영사 러 노바텍에 공급하기로 했던 가스 터빈 21대 중 4대만 공급하며 정상적인 LNG 생산에 제동('24.5)⁸⁾
- Arctic LNG-2용 모듈 및 발전소 건설을 담당했던 중국 협력사 (Wison New Energies) 또한 러시아 내 사업 잠정 중단을 발표 ('24.6)⁹⁾
- * 그 결과, Arctic LNG-2의 LNG 생산량은 '24.3월 1.5억m³ 수준의 최저치 유지 중, 제재로 인한 운반선·관련설비 수급 문제로 생산 역량보다 한참 밑도는 수준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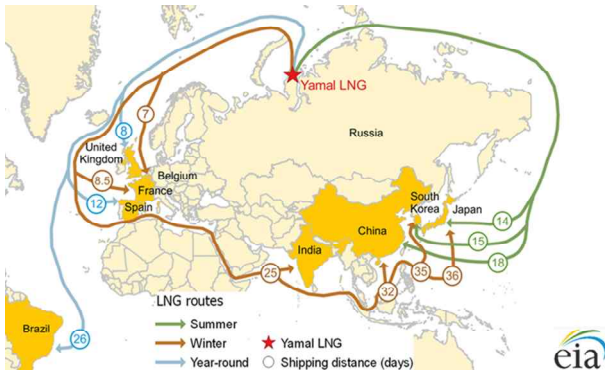
6) “Еврокомиссия приняла план по отказу от российских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к 2027 году,”
<https://4esnok.by/novosti/evrokomissiya-prinyala-plan-po-otkazu-ot-rossijskih-energoresurov-k-2027-godu/>, (검색일: 2024년 6월 4일)

7) “Япония продолжит участие в газовых проектах на Сахалине ради энергобезопасности,”
<https://fedpress.ru/news/77/energetics/3234682>, (검색일: 2024년 6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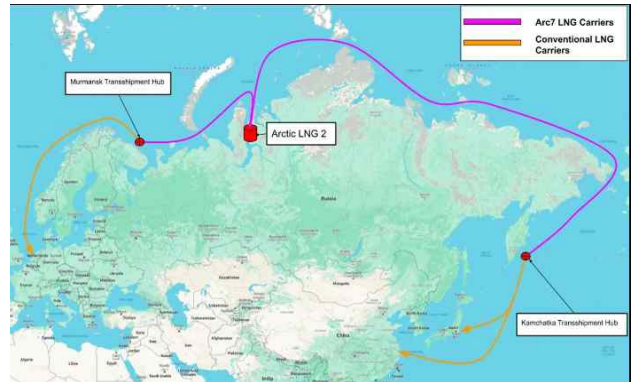
8) “Российский газовый проект не смог перейти на китай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https://lenta.ru/news/2024/05/13/turbina/>, (검색일: 2024년 6월 4일)

9) “Китайский партнер «Новатэка» по проекту «Арктик СПГ-2» приостановил работу в России,”
<https://www.forbes.ru/biznes/515304-kitajskij-partner-novateka-po-proektu-arktik-spg-2-priostanovil-rabotu-v-rossii>, (검색일: 2024년 6월 22일)

[그림1] Yamal LNG 수출 노선



[그림2] Arctic LNG-2 수출 노선



*자료: (좌) static.seekingalpha.com, (우) Energy Flux¹⁰⁾

○ (석탄) 비우호국 수입 감소, 주요 수요처 중국·인도 수요 감소

- (미국·EU·영국·호주) 러産 석탄 수입 금지 유지 중
 - (일본) 러시아산 석탄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선언('22.4), 호주·인도네시아산 공급처 다변화로 석탄류(HS 2701) 수입 60% 이상 감소
 - (미국) 러 최대 석탄기업 Sibanthracie Group 제재('24.5)
 - (한국) 발전 공기업 5개사, 러시아산 석탄 수입 감축 조치('23.9)¹¹⁾
 - * 한국의 대러 석탄 수입량: 2천 6백만 톤('22년) → 천 5백만 톤('23.1-8월)
 - (러産 석탄 가격 하락) 러시아산 석탄의 주요 수입국이었던 중국과 인도의 수요 감소로 러시아산 석탄 가격은 '21년 이후 최저치 기록 중
 - * 러시아산 석탄 가격: 162달러/톤('23년) → 평균 142달러/톤('24.4월)
- '24년 우호국의 수요감소, 철도인프라 노후화, 온화한 날씨 탓에 '24.1월 러시아의 석탄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8% 감소한 1,460만

10) "Russia's stunted LNG coup,"

www.energyflux.news/p/russia-coup-arctic-lng-2-sanctions-natural-gas, (검색일: 2024년 6월 4일)

11)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 러시아 석탄 수입 안한다."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59867> (검색일: 2024년 7월 2일)

○ (금속) 품목별·국가별 수입 감소 혹은 지속 중

- (미국·영국) 러시아산 알루미늄·구리·니켈 수입 금지 등 조치
 - * 시카고 상업거래소 및 런던 금속거래소에서의 러産 알루미늄·구리·니켈 거래를 금지하며 러産 알루미늄과 니켈 가격은 한 때 각각 9.4%, 8.8% 급등('24.4)¹²⁾
- 러 언론은 동 조치로 러 최대 금속 기업 Rusal의 손실 예측¹³⁾,
현지 전문가들은 동 제재로 중국의 對세계시장 공급량 증가 예측
- (EU) 제12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23.12)에 러産 철강제품·알루미늄 품목의 수입쿼터를 설정하여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 중
 - EU의 '24.3월 대러시아 철강 제품 수입은 전월 대비 70% 증가한 3억 3천만 유로, 알루미늄 수입 또한 전월 대비 29% 증가한 9천만 유로
 - EU의 '23년 대러시아 구리 수입은 79% 감소한 약 6만 2천 톤
- (한국) 대러시아 알루미늄 수입 유지 중
 - * '24.3월 한국의 대러시아 알루미늄 수입량은 전월 대비 43% 증가한 약 4만 톤 (9천만 달러) 기록하며, '12.6월 이후 최대 수입량 기록¹⁴⁾

○ (다이아몬드) '24년 주요국의 수입 금지 조치, 일부 국만 수입 지속

- (EU) 제12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23.12)로 러産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24.1), 제 3국에서 가공된 1캐럿 이상의 러産 다이아몬드도 수입 금지('24.3)
- (일본·영국) 대러시아 제재 확대로 러産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24.1)
 - 전 세계 다이아몬드 원석 시장(약 120억 달러 규모)에서 러産 다이아몬드 원석의 비율은 약 33%(약 40억 달러)로 추정, 러 언론은 다

12) “Алюминий начал дорожать после введения санкций против российского сырья,”
<https://www.kommersant.ru/doc/6648728>, (검색일: 2024년 6월 5일)

13) “«Ъ» узнал о влиянии санкций США и Британии на треть экспорта «Русала»,”
<https://www.rbc.ru/business/16/04/2024/661daadf9a79472d204072a9>, (검색일: 2024년 6월 5일)

14) “Россия стала главным поставщиком алюминия в Южную Корею впервые за десять лет,”
https://www.kommersant.ru/doc/6663012?from=top_main_4, (검색일: 2024년 6월 5일)

이아몬드 시장에서 러시아가 퇴출시 서방 유통사들의 예상 손실액이 약 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¹⁵⁾

→ 한편 미국은 2023년 12월에 G7 국가들이 승인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 언급

- (벨기에) 러시아산 산업용 다이아몬드 수입 재개^(24.2)

○ (기타) 미국의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금지, 티타늄은 수입 지속

- (미국) 2024년까지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24.8월 시행)

* 러시아산 우라늄은 품질면에서 원자력 발전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우라늄 수입 중 24%가 러시아산¹⁶⁾

- (캐나다·독일·프랑스·미국) 항공기 제작용 티타늄의 최대 생산국인 러시아는 캐나다 에어버스社에 납품 지속^(24.4), 독일·프랑스·미국도 대러시아 티타늄 수입 지속 중^(24.4)

15) “Запрет на российские драгоценные камни отнимет у Запада около 20 млрд долларов,” <https://rg.ru/2024/03/18/nebo-v-almazah.html>, (검색일: 2024년 6월 5일)

16) “Сенат США одобрил запрет поставок обогащенного урана из России,” www.vesti.ru/business/articles/2024/05/02/103485-snat-sha-odobril-zapret-postavok-obogashchennogo-urana-iz-rossii, (검색일 2024년 6월 5일)

□ 금융 분야

- (기존 제재 지속) '22.3월 SWIFT 방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러 주요 은행 57개를 포함한 사실상 대부분의 메이저 러시아 금융 기관 제재
 - 미국·EU, 제재 모회사와 그들의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뿐 아니라 제재 대상의 자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지속
 - 영국, 러 Novikom Bank 제재('23.12) 등 그 궤를 같이하는 중
- (2차 제재 강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조치*('23.12)로 중국·튀르키예·UAE 등 우호국들의 대러시아 거래 중단 현상
 - * 러시아와 관련된 특정 거래에 대해 외국 금융기관을 2차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미 대통령 행정명령('23.12.22)

러 우호국의 대러시아 금융 거래 정책 변동 현황 (2024)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 국적 고객을 포함한 대러시아 무역에 종사하는 고객에 대한 규제 강화(1.17) • 4대 은행 및 저장성 상업은행·중신은행 등 주요 대형은행, 러와 대부분 거래 중단(4.17)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 금융기관과 중개 협력 및 결제 서비스 제공 중단(1.17) • 러 기업 계좌 해지 착수 및 러 개인 고객 규제 강화(2.1)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인 소유 기업의 계좌 해지 및 UAE 내 계좌 보유한 러 은행 거래 차단(2.19)
키르기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결제시스템(21개 은행 가맹)의 러시아 MIR 카드 결제 중단(4.5)

* 자료: 러 현지언론 종합

- 실제 '24.2월에는 이중용도품목의 대러시아 수출에 연루된 중국은행 및 업체가 2차 제재 부과되며, 러-중 교역은 일시적으로 위축

- 이에 따라, USD 외 대안으로 여겨져 왔던 CNY(위안화)의 송금 여건이 악화되며 우리 수출기업의 러→한 대금수취 애로가 크게 심화
 - * 대부분의 CNY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중국 국적 은행들이 러시아 은행들과 거래를 거부
- (자산동결) G7·EU, 역대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한 대우크라 지원 결정
 - G7, 역대 러 중앙은행 동결 자산 2,800억 달러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담보로 500억 달러 규모 대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결정(‘24.6)
 - EU, 역대 러 동결 자산에서 발생하는 연 50억 유로의 수익금 중 3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승인(‘24.5)
 - 다만, △러시아 내 서방자산의 규모 △러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고려했을 때, 원금 몰수 조치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 한편, EU는 12차 제재 패키지로 국방·경제부문을 중심 개인 61명 · 기업 86개 추가 제재, 13차 제재 패키지로 제재 우회 지원자 등 개인 106명 · 기업 88개 추가로 제재
 - * 제재자들은 EU 내 자산동결·거래금지·입국금지 조치
 - 호주, 자국 내 러 동결 자산을 임의 사용하지 않겠다 언급(‘24.5)¹⁷⁾했으나 ‘24.2월 러-우 사태와 관련된 개인 55명 · 기업 37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며 서방국들과 기조를 같이하고 있음

17) “Австралия не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замороженные активы России.”
<https://www.vedomosti.ru/politics/news/2024/05/27/1039651-avstraliya-ne-budet>, (검색일: 2024년 6월 7일)

□ 물류 분야

○ (항구 및 선박 제재)

- '24.2월 러-우 사태 발발 2주기, 미국은 극동러 Vostochny Port 터미널 운영사, 러 최대 컨테이너사 Transcontainer, 극동러 최대 조선소 Zvezda를 제재함으로써 러 물류기반에 대한 견제를 강화

* Vostochny Port은 극동러 주요 4개 항구 물동량의 47%(총 1억 8천만 톤 중 8천 7백만 톤, 23년 기준)이 처리되는 곳으로 동북아시아 교역에 영향 예상

- 호주,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의심되는 부두 운영사 Vostochnaya Stividornaya 및 해운사 Marine Trans Shipping 등을 제재('24.5)하며, 러시아와의 교역을 전면 중단 수준으로 유지
- 이 외, G7 정상회담('23.5) 계기 미국의 대러시아 70개 법인 · 300명 개인 제재, 영국의 대러시아 86개 법인 · 개인 제재 부과 등 서방은 물류 관련 기업과 선박 제재를 이어가는 중

[그림3] 극동러시아 주요 항구



*자료: 연합뉴스(Yonhap News) 보도자료 재가공¹⁸⁾

18) “[남북경협] 유라시아행 기차길 ‘청신호’.”
http://www.yonhapmidas.com/article/180704163139_710614. (검색일: 2024년 6월 7일)

○ (육로폐쇄 및 항공사 제재)

- (미국) 러시아 내 몰수된 서방 리스 항공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러 저가 항공사 Pobeda 제재('24.5)
- (EU) 14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24.6 발표예정)에는 러시아 항공기 운항 금지에 대한 강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 (핀란드) 러시아와의 육로 국경 폐쇄('23.11) 무기한 연장 선언('24.4)
- (에스토니아) EU 입국 자격이 없는 러시아인을 고의적으로 국경으로 보내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육로 국경 폐쇄 가능성을 언급('24.2)
- (발트 3국) 러 등록 차량의 육로 입국을 금지('23.9)

□ 상품 수출입 분야

[공통]

직·간접적으로 러시아에 군사적 도움이 되거나, 러시아 기간 산업에 이용되어 결론적으로 러시아 경제와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만한 품목들을 지속적으로 통제 리스트에 추가

- (미국)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및 러시아 지원과 관련하여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24.4)
 - 해외직접생산 규칙(FDPR) 적용 품목을 14개에서 53개로 확대,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공작기계류·볼베어링·전자변압기 등 추가
 - 미국은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의 통제 기준을 HS 10단위에서 6단위로 변경('23.2), 산업용 품목 1,224개 통제 리스트에 추가('23.5)한 바 있음

- (일본) '24.4월부 대러시아 수출 통제품목에 164개 품목 추가
 - 플라스틱용 화학물질(HS 39류), 리튬·니켈·수소 축전지(HS 85류), 온도조절기(HS 90류) 등 드론·항공 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하여 석유·가스수송 파이프(HS 73류), 비철금속(HS 8112.49), 액체펌프(HS 84류) 등 포함
 - 동 조치와 함께 러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비공업용 다이아몬드(제 3국가공품 포함)의 수입을 금지
 - '23.8월에는 1900cc초과 자동차와 트럭 타이어, 화학제품 등 산업용 품목 758개를 통제 리스트에 추가한 바 있음
- (EU) 드론 배터리에 활용되는 리튬·리튬혼합물·온도조절기 등을 추가, 일반산업용 물자의 경우 EU産 품목이 아니더라도 EU 영토 내에서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문구를 추가('23.12)
 - 러시아를 경유하여 수출할 수 없는 품목들에 내연기관 필터·건설중장비·노트북 등을 추가하여 중요 이중용도 물품의 대러 유출을 원천 차단
 - 또한, 제 3국이 EU로부터 이중용도 품목을 수입하여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제3국 수출 계약서에 러시아로 재수출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적시하게끔 조치¹⁹⁾
 - * 동시에 우회수출과 연루된 러29개·우즈벡1개·싱가폴1개 기업을 제재대상에 추가
- (호주) 호주 정부는 연방의회에 '국방무역통제법' 개정안 제출('23.11), 오커스 국가(호주·영국·미국)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전략물자 품목 및 기술 외에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간주
 - * 용어 명확화, 재수출 금지 조항 등을 정비하여 전략물자 관리 통제 정도를 강화

19) "EU의 제12차 對러 제재 내용 및 효과 분석."

<https://www.kosti.or.kr/brd/board/215/L/menu/281?brdType=R&bbsSn=4895>. (KOSTI 수출통제 Issue report 2024-3호)

2 러시아의 제재 대응 현황

□ 에너지 분야

- (공통 방향) 중국·인도 등 제재 미동참 우호국 활용
- (원유·석유) 대우호국 수출, 생산장비 자국화, 북극항로 활성화
 - '23년 러시아의 대중국 원유 수출은 1억 7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 금액 기준으로는 3.5% 증가한 606억 달러 기록
 - '24.1-4월 기준 러시아의 대중국 원유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3,780만 톤(221억 달러)로 러 원유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수준
 - '23년 러시아의 대인도 원유 수출 또한 전년 대비 70% 늘어난 7천만 톤, 인도는 중국 다음의 2대 수입국이 되었고, 상당 분량의 원유를 제 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다만, 인도는 미국의 2차 제재 강화('23.12) 이후 유가상한제 모니터링 강화 및 해운사 제재 등을 이유로 이라크·UAE·사우디로 공급국 다변화 가능성 시사,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제재 완화로 베네수엘라産 수입도 검토
 - 러시아는 서방의 선박 제재에 대해선 노후 유조선을 매입하여 추적이 어려운 일명 '그림자 함대'를 통해 암암리에 중국·인도·튀르키예에 원유와 가스를 수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러시아는 수출 시장 다변화 외 △원유 시추·생산장비의 자국화 △북극항로의 개발을 통해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려 하고 있는데,

- 러 정부는 2030년까지 석유 및 가스 생산 장비 국산화를 이룩하겠다는 목표로, 가령 가스프롬에서는 원유 시추를 위한 수압 파쇄용 장비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러 부총리 주장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에너지 생산 장비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67%에서 38%로 감소)²⁰⁾
- 또한, 운반선·쇄빙선 수급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스프롬과 로스네프트는 '23년 북극항로를 통해 150만 톤에 이르는 석유를 운송해냄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다는 평가²¹⁾

○ (가스) 가스관 신설·확충 통한 대우호국 수출량 확대

- '23년 러시아의 대중국 LNG 수출은 8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 대인도 및 튀르키예 수출량도 각각 48% 및 40% 증가
- 러시아는 2019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대중국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1'과 더불어 Yamal 가스전 생산분을 몽골을 경유하여 중국에 공급하기 위한 '시베리아의 힘-2', 사할린 가스전의 대중국 공급을 위한 '시베리아의 힘-3'의 개발과 확대에 투자 중
- 러시아는 또한 대중양아 가스 수출을 늘리기 위해 카자흐스탄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연간 28억m³ 수준의 가스를 수출 중으로('23.10), 2026년부터는 그 규모를 110억m³ 수준으로 늘릴 예정
- 대EU 가스관 '노르드스트림' 폭파('22.9) 이후 러시아는 '22.10월 부터 논의되고 있던 튀르키예와의 가스 허브 프로젝트 구축 가시화 노력 ('24.2)²²⁾

20)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е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добычи нефти и газа обойдется в 20 млрд рублей."
<https://www.vedomosti.ru/business/articles/2024/01/25/1016633-importozameschenie-oborudovaniya-dlya-dobychi-nefti-i-gaza>, (검색일: 2024년 6월 10일)

21) "По Севморпути впервые перевезли 1,5 млн тонн нефти за год."
<https://murmansk.rbc.ru/murmansk/29/12/2023/658ed41a9a7947c3b88f5dd3>, (검색일: 2024년 6월 10일)

22) "Источник рассказал о переговорах России и Турции по газовому хабу."
<https://lprime.ru/gas/20240219/843104500.html>, (검색일: 2024년 6월 11일)

- 한편 가스프롬은 극동러 주요 가스전인 사할린-2의 Shell(英) 지분 27.5%를 948억 루블에 인수 결정('24.3), 가스프롬의 지분이 77.5%에 달해 운영 안정성과 수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제재로 인해 북극항로에 활용할 운반선과 쇄빙선 수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과 한국에 러브콜 지속 중

○ (석탄·금속)

- '23년 러시아의 대튀르키예 석탄 수출량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2천 7백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튀르키예 석탄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8%→70%로 증가
- '23년 러시아의 대중국·튀르키예 구리 수출량은 전년 대비 14%, 61% 증가한 37만 톤, 17만 톤으로 대EU 수출량을 상당 부분을 대체

□ 금융 분야

- (자체결제망) SWIFT를 대체하는 러 자체 금융정보전송 시스템 (SPFS)*의 활성화 노력('23.10월 기준 가맹국 15개, 가맹기관 550개)²³⁾
 - 그러나, 2023년 미국의 2차 제재 강화 조치로, 중국의 결제시스템인 CIPS도 SPFS와의 거래를 중단하기 시작하는 등 활성화에 애로
- (결제 우회로 구축) 러 기업들, 자구책으로 '다수의 중개은행'을 연결하여 제재 회피를 시도 중이나, 수수료 및 환전비용 증가 문제 발생²⁴⁾

23) "Российским аналогом SWIFT пользуются около 150 нерезидентов, заявил ЦБ," <https://lprime.ru/20231030/842121779.html>. (검색일: 2024년 6월 11일)

24) "Российский бизнес начал создавать цепочки посредников дл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транзакций," www.forbes.ru/finansy/511819-rossijskij-biznes-nacal-sozdavat-cepocki-posrednikov-dla-mezhdunarodnyh-tranzakcij. (검색일 2024년 5월 6일)

□ 물류 분야

○ (국제남북운송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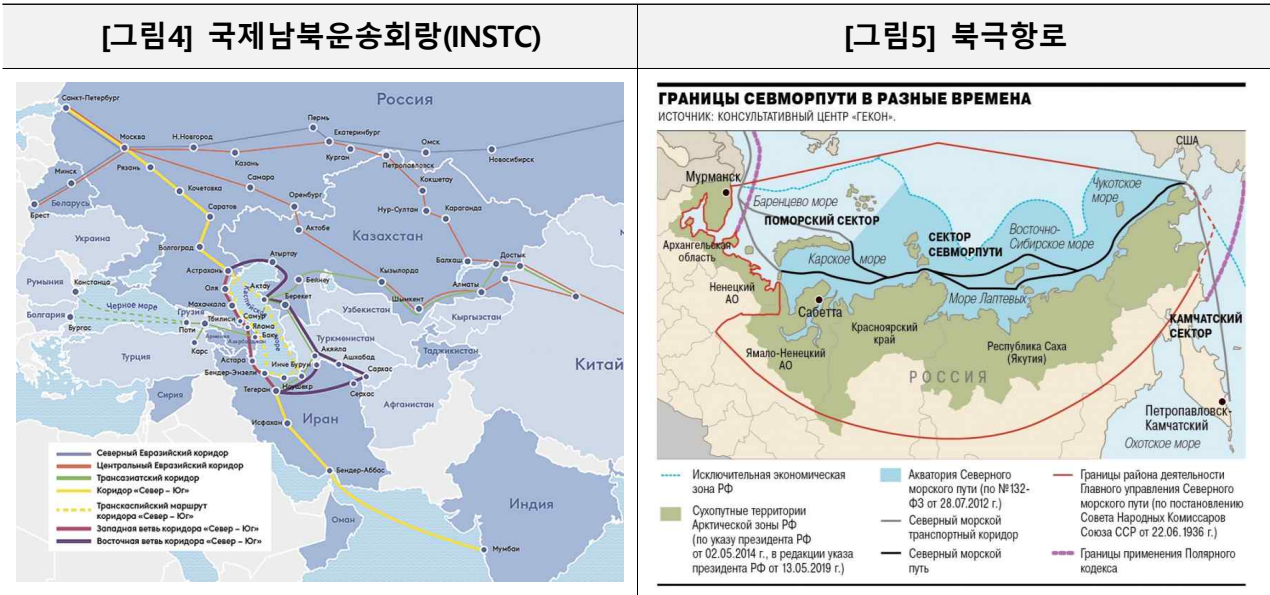
- 러시아는 리-우 사태에 따른 흑해 이용 제한 및 유럽으로 막힌 육로 루트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아제르바이잔-이란-인도’로 연결되는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를 2028년까지 완공시키겠다는 계획으로,
- 동 루트 활용시 상트페테르부르크-뭄바이 간 화물 운송 기간을 30~45일에서 10일로 단축이 가능하며, 홍해 리스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 (북극항로 개발 지속)

- Rosatom 리하체프 회장은 ‘23년 북극항로를 통한 운송량이 사상 최대 수준인 215만 톤을 기록했다고 언급하며 추후 북극항로의 이용 가능성과 그 중요성을 시사²⁵⁾
- 하지만, 주요 조선소 제재 및 운반선·쇄빙선 수급 문제를 겪고 있어 Rosatom은 총 1,200억 루블 상당의 쇄빙선 4척을 자체 건조할 계획이라 언급²⁶⁾
- Rosatom은 또한 북극항로 정기 컨테이너선 운영을 위해 UAE DP World(글로벌물류사)와 합작회사 ‘International Container Logistics’ 설립(*23.10)

25) “Объем транзитных перевозок по СМП в 2023 году достиг рекордных 2,15 млн т,”
<https://www.kommersant.ru/doc/6523694>. (검색일: 2024년 6월 11일)

26) “«Росатом» решил построить четыре дизельных ледокола за свой счет,”
<https://www.vedomosti.ru/business/articles/2023/11/03/1004014-rosatom-reshil-postroit-chetire-dizelnih-ledokola>. (검색일 2024년 6월 12일)



*자료:(좌) Yartpp²⁷⁾ (우) Russian-arctic.info²⁸⁾

□ 상품 수출입 분야

- (주변국 통한 우회수입) 자동차·전자제품·건설중장비 등 주요 제재 품목들은 중국·튀르키예·EAEU 등으로부터 우회수입 지속
- (병행수입 지속) ‘22.3월 도입 이후 점차적 확대 중으로 ’24.6월 현재 자동차·전자제품 등 국내 제조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 병행수입 허용 중, 러시아는 2025년도 병행수입 허용 예정이라 언급²⁹⁾
- (수입대체화 지속) 우회수입·병행수입 지속 한편,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생산 장려 및 핵심 생산기술에 대한 자국화 노력 지속
 - * 데이터 저장 시스템·산업용 서버·스마트폰·노트북의 병행수입 중단 논의(‘24.5월)³⁰⁾

27)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ранспортный коридор «Север - Юг»,” <https://yartpp.ru/news/detail/mezhdunarodnyy-transportnyy-koridor-sever-yug/>, (검색일: 2024년 6월 12일)

28) “Международное измерение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https://russian-arctic.info/info/articles/zamki-iz-artiki/mezhdunarodnoe-izmerenie-severnogo-morskogo-puti/>, (검색일: 2024년 6월 12일)

29) “Мантуров сообщил о продлении механизма параллельного импорта на 2025 год,” <https://www.kommersant.ru/doc/6748004>, (검색일: 2024년 6월 12일)

30) “Серверы и системы хранения данных могут исключить из списка параллельного импорта,”

□ 기타 대응조치

○ (비우호국 기업 자산 임시관리)(^{23.4})

- '23.4월 푸틴 대통령은 자국 해외자산을 압류한 비우호국 기업의 러시아 내 자산을 임시로 관리할 수 있는 법령* 서명, '경제·에너지 등 러 안보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시' 비우호국 기업의 러시아 내 자산을 임시관리 할 수 있음
- 동산·부동산·유가증권·러시아 회사 지분·재산권을 임시관리할 수 있는 유형의 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지는 것임 아님

* 특정 자산의 임시 관리에 관한 법령(대통령령 제302호, '23.4.25 시행)

** 동 법령 발효와 동시에 핀란드 에너지 국영기업 Fortum사의 러시아 내 자산과 독일 에너지 국영기업 Uniper사의 러시아 내 자산을 임시관리 대상으로 전환 조치

○ (외국기업 경영권 제한)(^{24.4})

- 러시아는 국가 안보 보장이라는 명목 하 외국인 주주의 경영 참여 배제에 관한 법령을 마련하고(^{23.9}), 법령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기업(ESO)' 명단을 발표(^{24.3})
-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중요기업(ESO)에 포함된 기업중 5개사*에 대해 외국인 주주의 경영권 박탈에 대한 심사를 개시(^{24.4}), 심사 가결 시 외국인 주주의 경영권은 '24.12.31까지 박탈됨³¹⁾
- * 'AB Holdings(투자)', 'UNS-Holding(컨설팅)', 'X5 Group(식품)', 'Razrez Arshanovsky(광업)' 및 'Gorodskoy Supermarket(식품)'
- 또한, 푸틴 대통령은 이탈리아의 'Ariston(전기온수기 생산판매)'사 및 독일의 'BSH Hausgerate(가전제품 생산)사의 러시아 내 자회사 경영권을 'Gazprom'사로 이전하는 대통령령에 서명³²⁾(^{24.4})

<https://tass.ru/ekonomika/20863521>. (검색일: 2024년 6월 12일)

31) "Юристы рассказали о рисках для бизнеса спора Минпромторга с X5 Retail Group." <https://pravo.ru/news/252673/>. (검색일: 2024년 6월 12일)

32) "Российские "дочки" Ariston и Bosch переданы в управление структуре "Газпрома",

- '23.12월에는 Northern Capital Gateway(키프로스) 사 등 상트페테르부르크 폴코보 공항 지분을 보유한 외국기업들의 지분을 러 정부에서 만든 VVSS Holding 사에 강제로 매각한 바 있음³³⁾

[비우호국 기업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시기	주요내용
'22.9월	외국기업 자산 매각가격 저평가(50%), 대금의 15% 세금성 납부금 부과
'23.4월	비우호국 기업의 자산을 임시로 관리(임대, 저당권 설정 등) 가능 조치
'23.5월	비우호국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비우호국 기업의 배당금 일정 부분 제한
'23.8월	'이중과세방지 협정' 일시중단, 일부 비목에 이중과세 가능성(양국 정부에서 동시과세)
'24.4월	러 중요기업(ESCO) 5개사에 대해 외국인 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청구심사 개시

* 자료: 러 현지언론 종합

[주요제재 및 러시아 대응현황 정리]

분야	주요 제재	러시아의 대응
에너지·자원	· 원유·가스·석탄 중심 대러시아 수입 제한 · 금속류·다이아몬드·우라늄 등 기타 자원으로 확대	· 對우호국 수출확대 및 우회수출 · 생산장비 및 운반기술 자국화
금융	· 2차 제재 강화로 러 우호국과의 거래 차단 ·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적극적 활용	· SWIFT 대체 SPFS 개발 및 확산 노력 · 다수의 중개은행 엮어 우회로 구축
물류	· 항구·선박·물류사 제재 지속 확대 · 항공사 제재, 러시아 접경국의 육로 차단 움직임	· 북극항로·국제남북운송회랑 개발 박차 · 주요 선박·물류사의 사명 및 지분구조 변경
상품수출입	· 미·일·EU, 제재품목 지속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 · 한국, 대러 제재품목 1,159개 → 1,402개로 확대	· 우호국 활용 우회 수입·수출 · 수입대체화 조기실현 추진

* 자료: 제1장의 제1·2절 요약

<https://rg.ru/2024/04/26/rossijskie-dochki-ariston-i-bosch-peredany-v-upravlenie-strukture-gazproma.html>, (검색일 2024년 6월 12일)

33) "Путин в рамках контрсанкций передал доли УК аэропорта Пулково в новый холдинг,"

<https://tass.ru/ekonomika/19427325>, (검색일: 2024년 6월 12일)

3

2023년 러시아 경제 진단

- 2023년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인 3.6% 기록
 - (경제성장률) △EAEU 및 BRICS 등 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중국·인도·튀르키예로의 에너지 수출 시장 다변화,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개선 등으로 '23년 예상보다 높은 3.6% 기록
 - 특히, 방산업·제조업·건설업의 성장이 산업생산을 견인하며 산업생산 지표는 전년 대비 3.5% 증가

- 제재 학습효과에 따른 시장 안정화
 - (공급망) 러시아의 우회수입 및 병행수입*으로 주요 원자재 및 완제품 시장 공급 정상화, BRICS 등 우호국 중심으로 러시아의 수출시장 다변화
 - * 수입브랜드 일부에 대해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상표권 등록없이 유통을 허용하는 제도

 - (환율) 기준금리 인상('23.12, 16%), 러 기업의 외화 수출 대금 의무 매각조치('23.10), 가스 수출 대금의 루블화 결제, 외화 반출 제한 등으로 달러당 RUB 90 내외로 방어 중
 - * 달러당 루블화 평균 환율: 73.7('21) → 68.4('22) → 85.8('23) (러 중앙은행)

 - (물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 루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으로 '23년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7.4% 상승('22년 11.9% 상승)

 - (금리) 환율방어 및 물가안정을 위해 '23.7월 이후 매월 기준금리 인상, '24.6월 현재 기준금리는 16%로 '22년말 7.5%에 비해 8.5%p 높음

- (주식시장) 러-우 사태 직후 2,400대까지 폭락했던 MOEX지수*는 '24.5월 3,300대로 회복, 러-우 사태 이전 수준인 3,500대로 회복 기대
*모스크바 증권거래소(Moscow Exchange)에서 거래되는 러시아 대표 주가지수
**다만, 미국의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제재('24.6)로 '24.6.17. 현재 3,200대로 하락
- (재정수지) '23년 재정수입 29.1조 루블, 재정지출 32.4조 루블, 3.2조 루블의 재정적자(GDP의 1.9% 규모)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 기록

□ 주요 경제지표 (생산·소비·고용·투자) (2023년)

- (생산) '23년 산업생산은 제조업(+7.5%), 건설업(+7.9%)에 힘입어 증가세 지속, 구매관리자지수(PMI) 또한 연간 평균 53.3으로 양호한 수준
- (소비)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비교적 가파른 소비자 물가상승(7.4%)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 증가율 6.4% 성장하며 양호한 추세
- (고용) 군 동원령, 비우호국 인력 유출, 인근국 외노자 이탈(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로 역대 최저 실업률('23년 3.2%, '24.5월 2.6%) 기록 중으로 사실상 인력 부족 상태
- (투자)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외국기업의 대리 투자 감소, 정부 투자 중심으로 재편 속 지속되는 기준금리 인상(16%)으로 기업투자 경직

[러시아 경제 주요지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경제성장률	+4.7%	-2.1%	+3.6%
산업생산	+5.3%	-0.6%	+3.5%
소매판매	+7.3%	-6.7%	+6.4%
물가상승률	+8.4%	+11.9%	+7.4%
실업률	4.8%	4%	3.2%
재정수지	+0.5조 루블(GDP의 0.4%)	-3.3조 루블(GDP의 2.1%)	- 3.2조 루블 (GDP의 1.9%)

* 자료: 러시아 통계청·중앙은행·경제개발부

II

러시아의 교역구조 재편

1

대(對)우호국(중국·인도·튀르키예·브라질) 교역구조 변화

□ BRICS 등 우호국 중심으로 재편된 러시아의 전체 교역

- (대외교역) '23년 총 대외교역액은 7,101억 달러('22년대비 Δ 16.5%, '21년대비 Δ 9.7%), 러우 사태 이전 대비 중국·인도·튀르키예와의 교역 급증
 - * '23년 러시아 - BRICS 교역액 2,940억 달러로 러시아 총 교역액의 41.4% 차지
 - ** '23년 러시아는 러우사태 이전인 '21년 대비 對 중국(+69%), 인도(+461%), 튀르키예(+72%)과의 교역을 대폭 늘림
- (러시아의 전체 수입) '23년 수입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2,851억 달러, 제재 품목은 병행수입 · 우회수입 · 자국생산으로 대체 지속
 - * (수입 품목) 자동차 · 자동차 부품류 수입 급증하여 192억 달러(전체의 6.7%), 의약품 · 면역용품류 197억 달러(전체의 6.9%), 신발류도 28% 증가한 33억 달러
- (러시아의 전체 수출) '23년 수출은 전년대비 28.1% 감소한 4,251억 달러, 주요품목(원유·석탄·가스)의 대EU 수출량을 우호국으로 공급 전환
- (주요 교역국) 러우사태 이전 주요 교역국이었던 유럽(독일·네덜란드 등) 및 미국 등 비우호국과의 교역 급감, 우호국 중 Δ 인도, Δ 튀르키예, Δ 카자흐스탄과의 교역이 눈에 띄게 증가
- (대한국 교역) '23년 러시아의 대한국 수출은 89억 달러('22년대비 Δ 40%, '21년대비 Δ 49%), 대한국 수입은 61억 달러('22년대비 Δ 3%, '23년대비 Δ 39%)
 - 결과적으로 '23년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150억 달러로 사태 이전 대비 45% 감소
 - * 벨라루스는 3-4위 교역국으로 추정되지만, 통계 미발표로 제외
 - ** 러시아의 대비우호국 교역 감소('23/'21): 미국(Δ 86%), 일본(Δ 52%), EU(Δ 67%), 영국(Δ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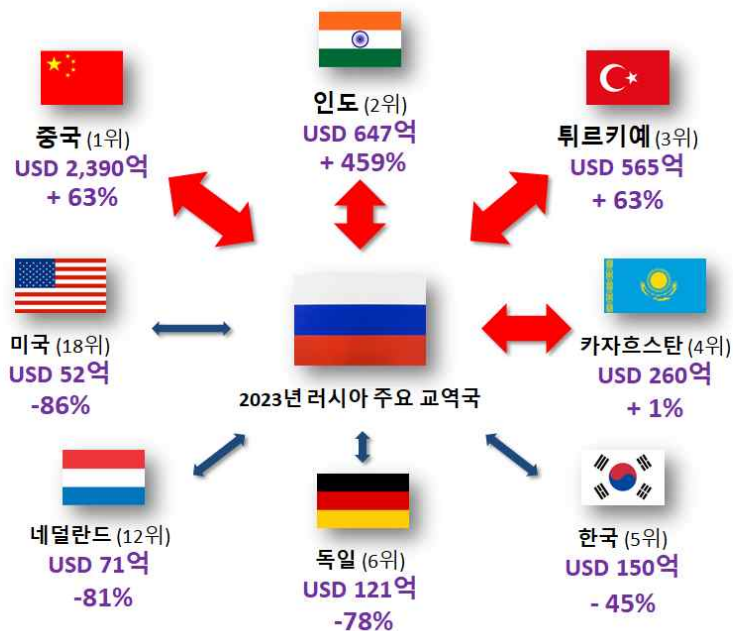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교역국 변화]

(단위: 억 달러)

구분	2021년 러시아의 주요 교역국			2023년 러시아의 주요 교역국				
	국가	교역액	주요품목	국가	교역액	주요품목		
1	중국	1,468	수입	휴대폰·의류	중국	2,390	수입	자동차·휴대폰
			수출	원유·석탄·가스			수출	원유·석탄·가스
2	독일	570	수입	의약품·자동차	인도	647	수입	의약품·알루미늄
			수출	원유·석탄·백금			수출	원유·석탄·다이아
3	네덜란드	464	수입	의약품·면역용품	튀르키예	565	수입	과일·수산물·윤활유
			수출	원유·가스·구리			수출	원유·곡물·구리
4	미국	360	수입	항공부품·자동차	카자흐스탄	260	수입	우라늄·알루미늄·철강
			수출	원유·백금·철강			수출	원유·곡물·전기
5	튀르키예	347	수입	과일·수산물	한국	150	수입	윤활유·화장품·자동차
			수출	곡물·석탄·철강			수출	석탄·가스·수산물

* 자료: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는 3-4위 교역국으로 추정되지만, 통계 미발표로 제외)

[그림6] 2023년 러시아의 주요 교역국



* 자료: Global Trade Atlas 통계 종합

□ 대(對)중국 교역구조 변화

- (교역액) '23년 러-중 교역액은 2,390억 달러('22년대비 +27%, '21년대비 +63%)로 역대 최고치 기록하였으며, 러시아는 중국에 주로 에너지류를 수출하고 자동차·전화기·컴퓨터 등 완제품을 수입하는 구조
- '24.1~5월 교역액 또한 전년 동기비 2.9% 증가한 965억 달러로 '24년 또한 역대 최고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2021~2024.3 러시아-중국 교역]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1-3
수출 (증감율)	796 (38.0)	1,122 (41.0)	1,276 (13.7)	321 (8.5)
수입 (증감율)	672 (33.1)	763 (13.5)	1,114 (46.0)	244 (1.2)
교역액	1,468	1,885	2,390	565
무역수지 (러 기준)	124	359	162	77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수출입은 러시아 기준

- (대중국 수출) 사태 이전과 이후 모두 수출 품목은 석유·석탄·가스 등 에너지류로 비슷하나, 그 양이 모두 증가하여 총 수출액은 1,276억 달러('22년대비 +14%, '21년대비 +60%)
- 특히, 가스(HS 2711)와 원유·석유·석유제품(HS 2709, 2710)의 수출액이 사태 이전 대비 각각 172% 및 59% 증가하며 러시아의 대EU 수출량이 중국으로 상당량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음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중국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	원유	40,544	2709	원유	59,335
2	2701	석탄	7,092	2701	석탄	14,239
3	2711	석유가스·탄화수소	4,304	2711	석유가스·탄화수소	11,723
4	7403	구리·구리합금	3,906	2710	석유·석유제품	7,168
5	4407	제재목	3,044	7403	구리·구리합금	3,149
6	2601	철광	1,470	7601	알루미늄 피	2,827
7	2710	석유·석유제품	1,322	4407	제재목	2,647
8	2603	구리광	1,227	7110	백금	1,878
9	7110	백금	1,191	0303	냉동어류	1,577
10	0303	냉동어류	1,039	1514	유채유·겨자유	1,495
총계			79,594	총계		127,627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 (대중국 수입) 서방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품목인 자동차·건설중장비 품목과 타이어·모니터·신발 등 완제품 수입 증가에 따라 대중국 수입은 1,114억 달러('22년대비 +46%, '21년대비 +66%)
 - 특히, EU·한국·일본의 대러시아 자동차 수출 중단과 러시아 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철수의 여파로 중국제 자동차류의 급성장
 - '24.1~4월 러시아의 대중국 자동차 수입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35억 달러로 그 증가 추이는 '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중국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	스마트폰·전화기	5,385	8703	자동차	11,658
2	8471	컴퓨터	3,296	8517	스마트폰·전화기	4,185
3	8703	자동차	1,518	8701	트랙터	3,754
4	8708	자동차 부품	1,418	8704	화물자동차	3,089
5	4303	모피의류	1,375	8471	컴퓨터	2,923
6	9503	승용·기타 완구	1,246	8429	건설중장비	2,450
7	6402	신발	1,074	8708	자동차 부품	2,054
8	8516	가정용 전열기기	998	4011	타이어	1,678
9	9405	조명기구	918	6402	신발	1,459
10	8414	기체·진공 펌프	916	8528	모니터	1,422
총계			67,197	총계		111,443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 대(對)인도 교역구조 변화

- (교역액) '23년 러-인도 교역액은 647억 달러('22년대비 +75%, '21년대비 +458%), 사태 이전 교역액 10위권 밖이었던 인도는 '23년 러시아의 2번째 교역국으로 급부상, 러시아는 인도에 주로 에너지류를 수출하고 의약품·스테인리스강 등을 수입하는 구조
- '24.1-3월 교역액 또한 17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러 최대 은행 Sberbank는 대규모 거래 시 인도 통화 이용 고객을 위한 예금 개설 서비스도 개시('24.5)

[2021~2024.3 러시아-인도 교역]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1-3
수출	83	340	606	163
(증감율)	(40.7)	(309.6)	(78.2)	(5.2)
수입	33	29	41	11
(증감율)	(26.9)	(-12.1)	(41.4)	(22.2)
교역액	116	369	647	174
무역수지 (러 기준)	50	311	565	152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수출입은 러시아 기준

- (대인도 수출) 원유(HS 2709), 석유·석유제품(HS 2710), 석탄(HS 2701),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대인도 수출은 606억 달러('22년대비 +78%, '21년대비 +630%)
 - 이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유가 상한제, 러 선박·금융 기관 제재 등)에 따른 러시아의 자원류 우회 수출 결과로 보여지며, 인도는 수입된 원유·석유를 EU 등으로 재수출 하고 있음
 - 인도 정부 또한 대러시아 석유 수입을 지속하기 위해 자국 정유소에 러시아 공급사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³⁴⁾ ('24.5)
 - '24.4월 러시아의 대인도 석유 수출량은 전월 대비 20% 증가하며 인도의 전체 석유 수입량 중 40.3%가 러시아산
 - '23년 러시아의 대인도 비료 수출 또한 전년 대비 33% 증가한 480만 톤으로 러시아의 전체 비료 수출량 중 16%를 인도가 수입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인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	원유	2,307	2709	원유	44,724
2	2701	석탄	1,094	2710	석유·석유제품	4,508
3	7102	다이아몬드	856	2701	석탄	4,009
4	2710	석유·석유제품	739	3105	광물성·화학 비료	1,365
5	9801	N/A	399	7102	다이아몬드	1,094
6	3105	광물성·화학 비료	388	1512	해바라기씨유 등	1,060
7	7108	금	325	9801	N/A	922
8	1512	해바라기씨유 등	303	3102	질소비료	718
9	4002	라텍스 등	151	3104	칼륨비료	347
10	7106	은	137	1507	대두유 등	187
총계			8,251	총계		60,612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34) "Bloomberg: власти Индии советуют НПЗ заключить долгосрочные контракты с Россией," <https://www.kommersant.ru/doc/6713754>, (검색일: 2024년 6월 14일)

- (대인도 수입) '23년 러시아의 대인도 수입은 스테인리스강·산화알루미늄 수입이 증가하며 41억 달러('22년대비 +41%, '21년대비 +24%)
 - 러시아의 대인도 수입은 수출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리적 특성상 인도가 러시아의 통제품목 우회수입 통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러시아의 수입 수요가 높은 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인도産 경쟁력이 부족 한데서 기인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인도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	의약품	469	3004	의약품	340
2	8517	스마트폰·전화기	369	7219	스테인리스 강	218
3	7219	스테인리스 강	134	2818	산화알루미늄	169
4	0306	갑각류	118	0306	갑각류	149
5	8708	자동차 부품	114	6907	건축용 타일	113
6	0902	녹차·홍차 등	85	8517	스마트폰·전화기	108
7	2101	커피·차 등	61	8471	컴퓨터	86
8	2933	농약원제	57	2101	커피·차 등	80
9	1006	쌀	57	1302	식물성 수액 등	77
10	6907	건축용 타일	55	0902	녹차·홍차 등	70
총계			3,326	총계		4,057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 대(對)튀르키예 교역구조 변화

- (교역액) '23년 러-튀 교역액은 565억 달러('22년대비 Δ 17%, '21년대비 +63%), 러시아는 튀르키예에 주로 에너지류를 수출하고 석유화학제품·농수산물·윤활유 등을 수입하는 구조
 - 튀르키예는 러시아에게 에너지 대체 수출시장이자 제재품목의 우회 수입 루트, 러시아는 튀르키예에게 에너지·원부자재 공급국
 - 다만, '23.12월 미국의 2차 제재 강화조치로 인해 Δ 다수의 튀르키예 은행들이 러시아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있다는 점 Δ 미국의 제재 대상에 튀르키예 기업이 등재되고 있다는 점은 '24년 양 국 교역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

[2021~2024.3 러시아-튀르키예 교역]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1-3
수출	289	587	456	119
(증감율)	(61.5)	(103.1)	(-22.3)	(-9.2)
수입	58	93	109	21
(증감율)	(28.9)	(60.3)	(17.2)	(-30.0)
교역액	347	680	565	140
무역수지 (러 기준)	231	494	347	98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수출입은 러시아 기준

- (대튀르키예 수출) 석유·석유제품(HS 2710), 석탄(HS 2701), 구리·구리합금(HS 7403)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23년 대튀르키예 수출은 456억 달러('22년대비 +22%, '21년대비 +58%)
- 석유·선탕 외 구리류(HS 7403) 수출도 2배 이상 증가, 밀·메슬린(HS 1001)도 43% 증가한 것이 수출 증가의 원인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튀르키예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	석유·석유제품	3,718	2710	석유·석유제품	11,758
2	1001	밀 · 메슬린	1,864	2701	석탄	3,430
3	7207	철 · 비합금강 반제품	1,605	1001	밀 · 메슬린	2,663
4	7208	철 ·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1,563	7207	철 · 비합금강 반제품	1,664
5	2701	석탄	1,439	7403	구리·구리합금	1,504
6	7601	알루미늄 괴	1,219	7601	알루미늄 괴	1,225
7	1512	해바라기씨유 등	1,059	1512	해바라기씨유 등	491
8	7204	철 웨이스트 · 스크랩 등	898	1005	옥수수	471
9	7403	구리·구리합금	688	7201	선철 등	403
10	7201	선철 등	315	7208	철 ·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391
총계			28,905	총계		45,607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 (대튀르키예 수입) 석유제품(HS 2710), 트레일러(HS 8716), 건설중장비(HS 8429)의 수입이 증가하며 '23년 대튀르키예 수입은 109억 달러('22년대비 +17%, '21년대비 +88%)
 - 러시아의 대튀르키예 **유탄유 등 석유제품(HS 2710.19)** 수입은 2.3억 수준으로 동 HS Code 러시아 전체 수입의 24%(2위) 차지
 - 트레일러 및 건설중장비 또한 서방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통제품목으로 러시아의 우회 수입에 의해 증가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튀르키예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0805	감귤류·과실	427	0805	감귤류·과실	427
2	8708	자동차 부품	324	8708	자동차 부품	401
3	0809	살구·체리 등	208	8716	트레일러	275
4	1511	팜유	146	2710	석유·석유제품	227
5	0303	냉동 어류	137	0809	살구·체리 등	226
6	2710	석유·석유제품	121	0303	냉동 어류	221
7	0806	포도	111	8429	건설중장비	205
8	8902	어선·어획물 가공용 선박	93	8421	원심분리기 등	170
9	7308	철구조물	84	3907	아세탈수지 등	137
10	8716	트레일러	82	6204	여성·소녀용 의류	123
합계			5,772	합계		10,908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 대(對)브라질 교역구조 변화

- (교역액) '23년 러-브라질 교역은 사상 최대치였던 '22년 99억 달러를 갱신하여 113억 달러('22년대비 +24%, '21년대비 +55%), 러시아는 브라질에 디젤연료·비료 등을 수출하고 대두·쇠고기·커피·가금류 등을 수입하는 구조

[2021~2024.3 러시아-브라질 교역]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1-3
수출	57	79	100	23
(증감율)	(111.1)	(38.6)	(26.6)	(21.1)
수입	16	20	13	2
(증감율)	(6.7)	(25.0)	(-35.0)	(-60.0)
교역액	73	99	113	25
무역수지 (러 기준)	41	59	87	21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수출입은 러시아 기준

- (대브라질 수출) 디젤연료(HS 2710.19 기준) 및 비료류 수출 증가에 힘입어 '23년 러시아의 대브라질 수출은 100억 달러('22년대비 +27%, '21년대비 +75%)
 - 특히, '23년 러시아의 대브라질 디젤연료(HS 2710.19 기준) 수출은 '22년 대비 4257% 폭등한 45억 달러를 기록
 - '23년 러시아의 대브라질 비료 수출 규모는 40억 달러(940만 톤)에 달해 러시아의 전체 비료 수출량의 30%를 브라질이 수입
 - '23년 러시아의 대브라질 니켈 메트(HS 7501.10 기준) 수출액도 '21년 대비 165% 증가한 3천 8백만 달러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브라질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3104	칼륨비료	1,359	2710	석유·석유제품	5,263
2	3105	광물성·화학 비료	1,252	3105	광물성·화학 비료	1,574
3	3102	질소비료	921	3104	칼륨비료	1,445
4	2701	석탄	480	3102	질소비료	529
5	2710	석유·석유제품	433	1001	밀·메슬린	235
6	7207	철·비합금강 반제품	368	2701	석탄	207
7	7601	알루미늄 괴	143	2709	원유	191
8	7110	백금	138	7207	철·비합금강 반제품	104
9	7208	철·비합금강	120	2844	우라늄	88
10	4002	라텍스 등	86	4002	라텍스 등	62
총계			5,699	총계		10,013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 (대브라질 수입) 대두·쇠고기 수입 증가 외 향생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HS 3004.20)과 기타 의약품(HS 3004.90)의 대브라질 수입은 '21년 대비 각각 170만 달러(+582%) 및 130만 달러(+72%) 기록
- 대러시아 최대 의약품 공급국이었던 독일이 대러시아 수출을 줄이자 러시아는 브라질·인도 등에서 부족한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를 수급 중³⁵⁾
- 항공기 부품(기어)(HS 8483.40)과 특수 페인트(도료)(HS 3208.10)의 수입도 '21년 대비 각각 148만 달러(+320%) 및 144만 달러(+9,000%) 기록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브라질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1201	대두	343	1201	대두	613
2	0207	닭고기	167	0202	쇠고기(냉동)	187
3	0901	커피	133	0901	커피	131
4	1202	땅콩	130	1202	땅콩	125
5	1701	사탕수수당	127	0207	닭고기	98
6	0202	쇠고기(냉동)	116	1701	사탕수수당	35
7	7202	합금철	55	8424	기타 산업기계	27
8	8429	건설중장비	51	0206	쇠고기(냉동 외)	15
9	8424	기타 산업기계	50	2101	커피조제품	13
10	2101	커피조제품	47	3503	젤라틴 등	11
총계			1,587	총계		1,343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35) “Индия стала крупнейшим поставщиком лекарств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Какие страны сократили ввоз препаратов в страну.” https://www.rbc.ru/business/25/03/2024/65fd75399a7947fbff336ccd?from=from_main_7, (검색일: 2024년 6월 15일)

2 대(對)비우호국(미국·일본·EU·영국) 교역구조 변화

□ 대(對)미국 교역구조 변화

- (교역액) 러-우 사태 이전 360억 달러 수준의 양 국 교역액은 '23년 52억 달러('22년대비 △68%, '21년대비 △86%), 러시아는 미국에 우라늄·비료류 정도만 수출, 일부 의약품 정도만 수입 유지 중

[2021~2024.3 러시아-미국 교역]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1-3
수출 (증감율)	296 (75.2)	144 (-51.4)	46 (-68.1)	9 (-47.1)
수입 (증감율)	64 (30.6)	17 (-73.4)	6 (-64.7)	1 (-50)
교역액	360	161	52	10
무역수지 (러 기준)	232	127	40	8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수출입은 러시아 기준

- (러시아의 대미국 수출) 미국의 러시아산 에너지류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석유·원유·알루미늄의 수출 급감, 우라늄·백금·비료는 수출 지속
 - 미국은 원자력 발전에 적합한 러시아산 우라늄을 수입 지속, '24.3월 에도 55톤(1억 2,700만 달러) 수입했으나 미국은 '24.5월 러시아산 우라늄의 수입을 2040년까지 금지하기로 결정('24.8월 시행)
 - '24.3월 기준 미국은 백금(전년 동월 대비 +5.6%), 제트 엔진(전년 동월 대비 +40%), 티타늄(전년 동월 대비 +370%) 러시아산 일부 원자재는 수입 유지 중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미국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	석유·석유제품	12,750	2844	우라늄	1,210
2	2709	원유	4,688	7110	백금	1,160
3	7110	백금	2,450	3102	질소비료	836
4	7201	선철 등	1,158	3104	칼륨비료	336
5	0306	갑각류	1,098	7202	합금철	202
6	7207	철·비합금강 반제품	887	3105	광물성·화학비료	125
7	3102	질소비료	726	8411	터보 제트·프로펠러 등	91
8	2844	우라늄	670	4412	합판, 직충목재 등	74
9	7601	알루미늄 괴	483	2304	오일케이크	70
10	7202	합금철	455	8108	티타늄	62
총계			29,638	총계		4,566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 (러시아의 대미국 수입) '23년 러시아의 대미국 수입액은 6억 달러 ('22년대비 △65%, '21년대비 △90%)로 거의 모든 품목에서 대폭 감소하였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백신류(HS 3002.49, 3002.41), 의약품(HS 3004.90), 의료기기(HS 9018) 수입정도만 유지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미국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8800	민간 항공기	880	3002	사람·동물 피, 백신 등	124
2	8708	자동차부품	429	2106	기타 조제식료품	59
3	8703	자동차	300	9018	의료용 기기	59
4	8802	헬리콥터	216	9022	엑스선 기기 등	37
5	3002	사람·동물 피, 백신 등	204	3004	의약품	36
6	8701	트랙터	140	9021	정형외과용 기기	26
7	9018	의료용 기기	123	3302	방향성 물질 혼합물	20
8	8408	엔진	121	0511	동물성 생산품	17
9	2106	기타 조제식료품	100	9027	물리·화학 분석용 기기	15
10	8471	컴퓨터	99	8411	터보 제트·프로펠러 등	13
총계			6,386	총계		597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 대(對)일본 교역구조 변화

- (교역액) 러-우 사태 이전 218억 달러 수준의 양 국 교역액은 '23년 104억 달러('22년대비 △47%, '21년대비 △52%), 러시아는 일본에 가스와 석탄을 수출하고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을 수입하는 구조

[2021~2024.3 러시아-일본 교역]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1-3
수출 (증감율)	140 (30.8)	151 (7.9)	75 (-50.3)	16 (-36.0)
수입 (증감율)	78 (32.2)	47 (-39.7)	29 (-38.3)	4 (-55.6)
교역액	218	198	104	20
무역수지 (러 기준)	62	104	46	12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수출입은 러시아 기준

- (대일본 수출) 석유가스(HS 2711) 외 거의 모든 품목에서 수출 감소하여 '23년 러시아의 대일본 수출은 75억 달러('22년대비 △50%, '21년대비 △46%),
 -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단기간 내 대체 공급선을 찾는데 실패, 각각 30%와 22.5%의 지분을 가진 사할린-1, 2 가스전에 대한 참여도 유지할 것이라 언급('24.4)
 - 다만, '22.4월 러시아산 석탄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선언한 후, 호주·인도네시아산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여 석탄류(HS 2701) 수입은 67% 감소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일본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1	석유가스	3,377	2711	석유가스	4,185
2	2701	석탄	2,559	2701	석탄	852
3	2709	원유	2,327	7110	백금	434
4	7110	백금	1,398	0303	냉동어류	396
5	7601	알루미늄 괴	1,234	7601	알루미늄 괴	338
6	0303	냉동어류	619	0306	갑각류	328
7	4407	제재목	393	7202	합금철	187
8	0306	갑각류	392	4407	제재목	181
9	7202	합금철	358	0308	수생무척추동물	85
10	2710	석유·석유제품	353	2903	탄화수소의 할로젠화 유도체	80
총계			14,031	총계		7,460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 (대일본 수입) 일본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영향으로 주요 수입품이었던 자동차·자동차부품·건설중장비의 수입 감소, '23년 러시아의 대일본 수입은 29억 달러('22년대비 △38%, '21년대비 △63%),
 - 도요타·닛산·마츠다 자동차 제조사의 철수와 일본의 대러시아 제재로 '21년 대비 자동차(△40%), 자동차부품(△93%) 등 감소
 - 일본은 현재 1900cc 자동차와 트럭용 타이어, 화학제품, 축전지 등 산업용 품목 다수를 수출통제하는 등 강도 높은 대러시아 제재를 유지하는 중이기에, 한동안 대일본 수입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일본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	자동차	2,858	8703	자동차	1,716	
2	8708	자동차부품	908	8414	기체·진공 펌프	116	
3	8429	건설중장비	517	2710	석유·석유제품	86	
4	8704	화물자동차	377	8477	고무·플라스틱 가공기	80	
5	4011	타이어	366	8708	자동차부품	60	
6	8407	엔진	274	9619	위생용품	51	
7	8431	건설중장비 부품	89	8704	화물자동차	39	
8	8512	조명기기류	81	9018	의료용기기	39	
9	9018	의료용기기	77	8407	엔진	34	
10	9619	위생용품	75	8711	모터사이클	29	
총계			7,842	총계			2,850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 대(對)EU 교역구조 변화

- (교역액) 러-우 사태 이전 2,783억 달러 수준의 러-EU 교역액은 '23년 893억 달러('22년대비 △65%, '21년대비 △67%), 러시아의 대EU 에너지류 수출은 점차적 감소, 수입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백신류(HS 3002), 의약품(HS 3004), 의료용기기(HS 9018) 수입 위주로 유지

[2021~2024.3 러시아-EU 교역]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1-3
수출 (증감율)	1,739 (76.4)	1,963 (12.9)	480 (-75.6)	98 (-42.4)
수입 (증감율)	1,044 (16.5)	579 (-44.5)	413 (-28.7)	88 (-27.9)
교역액	2,783	2,542	893	186
무역수지 (러 기준)	695	1,384	67	10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주: 수출입은 러시아 기준

- (대EU 수출) 석유가스(HS 2711) 포함 거의 모든 품목에서 수출 감소하여 '23년 러시아의 대EU 수출은 480억 달러('22년대비 △76%, '21년대비 △72%),
 -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EU 또한 단기간 내 대체 공급선을 찾는데 실패, 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그리스 등 국가에서 가스 수입지속
 - 다만, EU의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 탈피 선언('22.4) 및 석탄 수입금지 조치('22.5)로 인해 주요 수출품목이었던 원유(HS 2709), 석유·석유제품(HS 2710), 석탄(HS 2701)은 모두 수출 급감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EU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	원유	56,789	2711	석유가스	18,098
2	2711	석유가스	27,913	2709	원유	10,032
3	2710	석유·석유제품	26,640	2710	석유·석유제품	3,378
4	2701	석탄	6,242	7207	철·비합금강 반제품	1,824
5	2707	벤젠	3,311	7601	알루미늄 괴	1,349
6	7207	철·비합금강 반제품	3,091	7501	니켈매트·산화니켈	1,206
7	7403	구리·구리합금	2,746	7110	백금	770
8	7110	백금백금	2,503	3102	질소비료	759
9	7102	다이아몬드	2,134	8401	원자로·연료요소 등	691
10	2601	철광	2,078	7502	니켈 괴	666
총계			173,930	총계		48,050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 (대EU 수입) 의약품(HS 3004) 및 백신류(HS 3002) 등 거의 모든 품목에서 수입 감소하여 '23년 러시아의 대EU 수입은 413억 달러 ('22년대비 △29%, '21년대비 △60%),
- EU의 강도 높은 대러시아 수출통제로 자동차·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 수입 감소, 러시아는 벨라루스·아르메니아·조지아 등 주변국을 통한 우회·병행 수입 지속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EU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	의약품	6,771	3004	의약품	6,673
2	8708	자동차부품	3,830	3002	사람·동물 피, 백신 등	1,996
3	8703	자동차	3,631	9018	의료용기기	1,286
4	8802	민간 항공기	2,675	2204	포도주	874
5	3002	사람·동물 피, 백신 등	2,099	8433	수확기·탈곡기 등	625
6	8471	컴퓨터	1,506	2208	증류주	623
7	9018	의료용기기	1,427	3808	살충제·살균제 등	611
8	8421	원심분리기 등	1,275	1806	초콜릿 조제품	589
9	8479	기타기계류(토목·금속용)	1,259	3304	화장품	536
10	8481	탭·코크·밸브	1,226	2933	질소 원자만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521
총계			104,362	총계		41,276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 대(對)영국 교역구조 변화

- (교역액) 러우 사태 이전 287억 달러 수준의 양 국 교역액은 '23년 9억 달러('22년대비 $\Delta 87\%$, '21년대비 $\Delta 97\%$), 유의미한 교역 거의 없음

[2021~2024.3 러시아-영국 교역]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1-3
수출 (증감율)	249 (2.9)	74 (-70.3)	3 (-96.0)	0.9 (-35.7)
수입 (증감율)	37 (37.0)	13 (-64.9)	8 (-38.5)	2.8 (16.7)
교역액	286	87	11	3.7
무역수지 (러 기준)	212	61	-5	-1.9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수출입은 러시아 기준

- (대영국 수출) 모든 품목에서 수출 감소하여 '23년 러시아의 대영국 수출 3.5억 달러('22년대비 △96%, '21년대비 △99%), 일부 백금·어육·티타늄 외 유의미한 수출 없음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영국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	금	15,269	7110	백금	104
2	2710	석유·석유제품	3,024	0304	어류필레·어육	61
3	7110	백금	1,988	8108	티타늄, 그 제품	58
4	2709	원유	1,425	3102	질소비료	45
5	2711	석유가스	1,250	8411	터보 제트·프로펠러 등	26
6	2701	석탄	212	8807	항공기부품	10
7	7106	은	192	2825	정밀화학원료	6
8	4407	제재목	166	2303	전분박 등	6
9	3102	질소비료	72	4407	제재목	3
10	2601	철광	70	9015	토지측량기	2
총계			24,869	총계		348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 (대영국 수입) 의약품(HS 3004) 외 모든 품목에서 수입 감소하여 '23년 러시아의 대영국 수입은 8억 달러('22년대비 △38%, '21년대비 △78%), 일부 의약품·백신류 외 유의미한 수입 없음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영국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	자동차	471	3004	의약품	440
2	3004	의약품	275	2934	핵산 등	36
3	8411	터보 제트·프로펠러 등	220	3402	표면활성제	25
4	8429	건설중장비	179	9001	전자현미경 부품	21
5	3002	사람·동물 피, 백신 등	102	2106	기타 조제식료품	21
6	8408	엔진	87	2933	농약원제	21
7	8803	항공기 부품	75	3002	사람·동물 피, 백신 등	20
8	8708	자동차부품	68	0407	새의 알	19
9	9032	자동제어기	68	2208	증류주	17
10	8427	지게차	60	2309	동물 사료	15
합계			3,741	합계		811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3

대(對)EAEU(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 교역구조 변화

□ 대(對)카자흐스탄 교역구조 변화

- (교역액) '23년 양 국 교역액은 260억 달러로, 사태 이후 소폭 상승세, 러시아의 대카자흐 수출은 감소한데 반해 수입은 증가하여 러시아의 무역수지는 '21년 대비 44% 감소
- 또한, 러 외무부 발표에 따르면 '23년 러-중앙아 교역액은 440억 달러이며, 카자흐·키르기스·타지키스탄과의 자국통화(루블화 혹은 상대국 통화) 결제 비율은 80%로 교역 강화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³⁶⁾

[2021~2024.3 러시아-카자흐스탄 교역]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1-3
수출	185	173	162	38
(증감율)	(31.6%)	(-6.5)	(-6.4)	(-2.6)
수입	71	88	98	18
(증감율)	(41.1%)	(23.9)	(11.4)	(-28.0)
교역액	256	261	260	56
무역수지 (러 기준)	114	85	64	20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수출입은 러시아 기준

36) “Товарооборот России со странам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2023 году превысил \$44 млрд.”
<https://www.kommersant.ru/doc/6691480>. (검색일: 2024년 6월 15일)

- (대카자흐 수출) 러시아 내 자동차 벨류체인 붕괴(생산공장 중단)로 사태 이전 주요 수출품이었던 자동차(HS 8703) 및 자동차 부품(HS 8708)의 수출 급감
 - 반면, 경제발전·인구증가·역(逆)허브화 현상에 따른 카자흐의 에너지류 수입 수요 증가로 석유·석유제품(HS 2710), 전기에너지(HS 2716) 등의 수출은 증가
 - ‘24.1분기 카자흐의 대러시아 전력 수입량은 29% 증가(9.7억kWh), 동 기간 중 러시아의 전체 전력 수출량 중 절반을 카자흐에서 수입, 카자흐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 역(逆)허브화가 지속되며 에너지류 중심의 수출 구조가 지속될 전망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카자흐스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	자동차	566	2710	석유·석유제품	597
2	2710	석유·석유제품	460	7305	철강제 관	458
3	2704	코크스	448	7207	철·비합금강 반제품	400
4	7108	금	366	1001	밀·메슬린	355
5	7207	철·비합금강 반제품	349	7214	철·비합금강 봉	268
6	7214	철·비합금강 봉	325	2716	전기에너지	235
7	8708	자동차부품	272	2844	우라늄	228
8	2616	귀금속광	272	2845	동위원소	216
9	4011	타이어	231	2846	희토류금속	215
10	7216	철·비합금강 형강	226	2847	과산화수소	210
총계			18,494	총계		16,192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 (대카자흐 수입) 우라늄(HS 2844) 및 자동차(HS 8703) 수입 증가하여 '23년 수입액 98억 달러('22년대비 +11%, '21년대비 +38%) 기록하며 우상향 추세 관찰

- 사태 이전에는 없던 자동차(HS 8703)의 수입 증가가 눈에 띄며, 러시아의 카자흐 내 우라늄 광산 투자를 이유로 우라늄(HS 2844)의 수입도 증가

* 러 원자력공사(Rosatom), 카자흐스탄 부데노프스코 우라늄 광산 인수('23.8)³⁷⁾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카자흐스탄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2601	철광	1,213	2844	우라늄	1,587
2	7208	철·비합금강 (열간압연)	626	7208	철·비합금강 (열간압연)	442
3	7210	철·비합금강 (클래드·도금)	452	2601	철광	375
4	2616	귀금속광	348	7210	철·비합금강 (클래드·도금)	320
5	7209	철·비합금강 (냉간압연)	303	2818	산화알루미늄	311
6	2701	석탄	302	7209	철·비합금강 (냉간압연)	228
7	7204	철 웨이스트·스크랩 등	283	8703	자동차	193
8	2818	산화알루미늄	194	2616	귀금속광	189
9	7202	합금철	153	2603	구리광	182
10	7901	아연 괴	146	7108	금	171
총계			7,132	총계		9,788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37) “Россия прибрала к рукам казахстанский уран… Или нет?,” <https://ru.sputnik.kz/20230519/rossiya-pribrala-k-rukam-kazakhstanskiy-uran-ili-net-35091724.html>, (검색일: 2024년 6월 15일)

□ 대(對)아르메니아 교역구조 변화

- (교역액) '23년 양 국 교역액은 73억 달러('22년대비 +46%, '21년대비 +180%), 아르메니아가 대러시아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며 러-우 사태 이전 대비 수출(+117%)과 수입(+325%) 모두 크게 증가

[2021~2024.3 러시아-아르메니아 교역]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1-3
수출 (증감율)	18 (20.8)	26 (46.9)	39 (48)	N/A
수입 (증감율)	8 (20.4)	24 (197.9)	34 (43.1)	
교역액	26	50	73	
무역수지 (러 기준)	10	2	5	

* 자료: ITC Trade Map, 주: 수출입은 러시아 기준

- (대아르메니아 수출) 금(HS 7108), 석유가스(HS 2711), 석유·석유제품(HS 2710), 다이아몬드(HS 7102)의 수출 증가로 '23년 수출은 사태 이전 대비 117% 증가한 39억 달러 기록
- 특히 서방의 주요 제재 대상인 △금, △원유·석유, △다이아몬드의 수출이 크게 증가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아르메니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1	석유가스	414	7108	금	1,338
2	2710	석유·석유제품	269	2711	석유가스	450
3	7601	알루미늄 괴	73	2710	석유·석유제품	317
4	7108	금	71	7102	다이아몬드	269
5	1001	밀·메슬린	62	7110	백금	183
6	1512	해바라기씨유 등	36	7601	알루미늄 괴	64
7	1806	초콜릿 조제품	27	1001	밀·메슬린	62
8	1517	마가린	23	7106	은	37
9	8703	자동차	20	1806	초콜릿 조제품	32
10	7102	다이아몬드	19	1512	해바라기씨유 등	29
총계			1,785	총계		3,881

* 자료: ITC Trade Map, 주: HS 4단위 기준

- (대아르메니아 수입) 스마트폰·전화기(HS 8517), 자동차(HS 8703), 모니터(HS 8528), 컴퓨터(HS 8471) 등 이전에는 수입이 미미했던 품목들의 수입 증가로 '23년 수입은 사태이전 대비 325% 급증한 24억 달러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아르메니아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2208	증류주	181	8517	스마트폰·전화기	500
2	7102	다이아몬드	68	8703	자동차	379
3	0302	어류	56	2208	증류주	253
4	0702	토마토	44	8528	모니터	250
5	0809	살구·체리 등	18	7102	다이아몬드	234
6	0810	딸기·오디 등	17	8471	컴퓨터	86
7	2402	제조담배	14	7202	합금철	73
8	0406	치즈	14	2613	물리브렌광	58
9	0802	아몬드	13	7113	신변장식용품	49
10	6116	장갑	12	8508	진공청소기	32
총계			794	총계		3,384

* 자료: ITC Trade Map, 주: HS 4단위 기준

□ 대(對)벨라루스 교역구조 변화

- 러시아-벨라루스 교역에 관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비교적 느슨한 수출통제, △지리적 인접성, △상당히 유사한 상거래 관행·인증제도 등의 이유로 전문가들은 벨라루스가 자동차 등 교역에 있어서 러시아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³⁸⁾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벨라루스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	자동차	450	N/A		
2	7204	철 웨이스트·스크랩 등	440			
3	7208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269			
4	7210	철·비합금강(클래드·도금)	232			
5	3902	프로필렌 중합체	177			
6	7209	철·비합금강(냉간압연)	155			
7	7306	철강제 관	151			
8	8708	자동차 부품	149			
9	7601	알루미늄 괴	140			
10	8517	8517	138			
총계			11,783	총계	N/A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벨라루스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3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0406	치즈	1,114	N/A		
2	0405	버터	406			
3	8703	자동차	399			
4	0402	분유	314			
5	9403	가구	291			
6	8708	자동차부품	268			
7	3923	플라스틱제품	266			
8	8528	모니터	259			
9	3004	의약품	220			
10	1604	어류 통조림	214			
총계			13,591	총계	N/A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 HS 4단위 기준

38) "EU seeks to stop Russia's imports of western luxury cars via Belarus."
<https://www.ft.com/content/792bc0e4-5208-4839-aa63-f5f6c7bf78d8> (검색일: 2024년 7월 2일)

□ 대(對)키르기스스탄 교역구조 변화

○ 러시아는 키르기스스탄에 에너지·곡물을 수출하고 구리제품·의류·의류원자재를 수입하는 구조로, 2023년 공식 통계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전자부품 등 교역에 있어 러시아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³⁹⁾

- 특히, 자동차를 키르기스(EAEU 회원국)으로 통관시켜 러시아로 반입 시 부가세 등 통관조건이 유리하여 상당량의 자동차가 키르기스를 통해 통관되었고('23년), 러시아는 추가과세를 통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입장⁴⁰⁾(24.4)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키르기스스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	석유·석유제품	666	2710	석유·석유제품	811	
2	7214	철·비합금강 봉	77	7214	철·비합금강 봉	114	
3	2711	석유가스	68	8703	자동차	96	
4	8703	자동차	64	1001	밀·메슬린	75	
5	1512	해바라기씨유 등	34	2005	감자·녹두 등	68	
6	1806	초콜릿 조제품	31	2711	석유가스	66	
7	0713	건조 채두류	31	1512	해바라기씨유 등	52	
8	1001	밀·메슬린	30	1905	빵·베이커리 제품	38	
9	1905	빵·베이커리 제품	30	3004	의약품	37	
10	4410	파티클보드 등	28	4410	파티클보드 등	36	
총계			1,872	총계			2,405

* 자료: ITC Trade Map, 주: HS 4단위 기준

[러우 사태 전후 러시아의 대(對)키르기스스탄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7404	구리 웨이트·스크랩	71	7404	구리 웨이트·스크랩	86	
2	0813	건조 과실	46	5205	면사	85	
3	7005	플로트 유리	25	6004	뜨개질 편물	50	
4	7204	철 웨이트·스크랩 등	24	5209	면직물	50	
5	8708	자동차부품	23	8302	장착구	46	
6	6110	스웨터 등	21	5508	재봉사	33	
7	0405	버터	13	0813	건조 과실	29	
8	0303	냉동어류	13	8422	집시세척기	28	
9	6108	슬립(편물제 등)	10	5407	나일론직물	27	
10	6204	여성·소녀용 의류	10	8708	자동차부품	26	
총계			413	총계			1,069

* 자료: ITC Trade Map, 주: HS 4단위 기준

39) "Perspectives | Central Asian states walking fine line on Russian sanctions,"

<https://eurasianet.org/perspectives-central-asian-states-walking-fine-line-on-russian-sanctions> (검색일: 2024년 7월 2일)

40) "С машинами творится нечто неевразимое," <https://www.kommersant.ru/doc/6510200>, (검색일: 2024년 6월 15일)

III

비제재 품목 중심 우리기업의 수출 고려사항

1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현황

□ 대러시아 수출통제품목 확대('24년 2월 24일부) ('24년 8월 확대 예정)

○ (추진배경) 미국, EU* 등 국제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확대 공조

* 미국 Secondary Sanction(제 3국 기업·개인 대상 2차 제재) 확대, EU 12차 대러 제재

○ (주요내용)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추가 (통제품목 798개 → 1,159개) HS 6단위 포함 적용기준 변경 등

- 기존 HS 10단위로 통제되던 품목이 상위그룹 체계인 HS 6단위로 변경되면서 통제 대상품목이 대폭 증가 (자동차의 경우 금액 기준 (미화5만불 초과)에서 배기량 기준(2,000cc 초과)으로 통제 강화)

[수출통제품목 확대(3차) 주요내용]

구 분	2차('23.4월)		3차('24.2월)
대상품목	전자, 조선 등 798개		철구조물, 항공기 부품, 공작기계,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계,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등 1,159개
적용기준	전략물자 관련품목	품명·기술사양	품명·기술사양
	일반 산업품목		HS 6단위 코드
	자동차	미화 5만불 초과	배기량 2,000cc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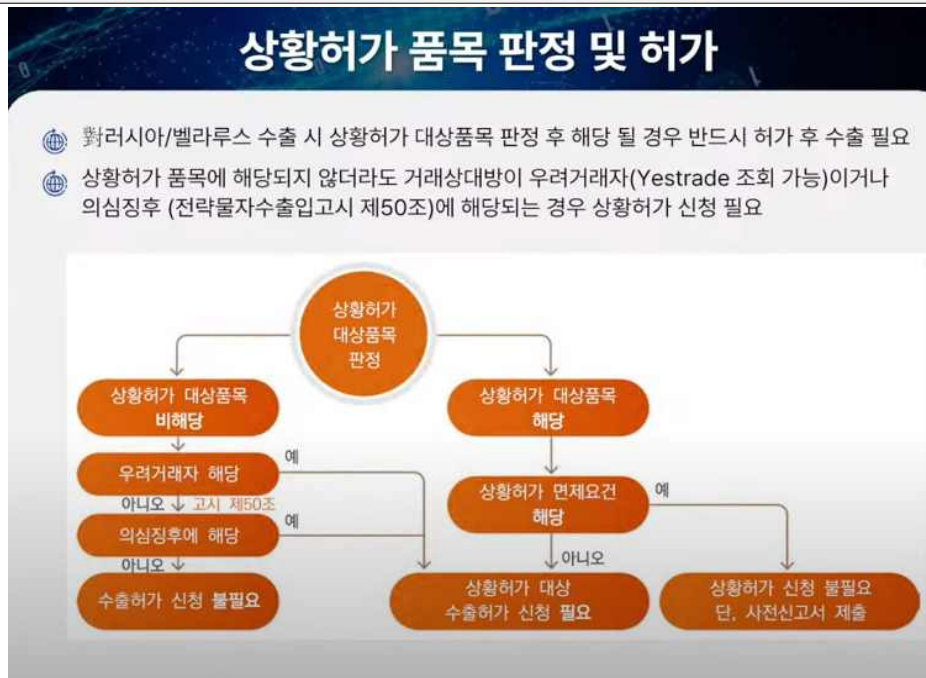
○ (상황허가) 대러 수출품목이 통제품목 리스트(1,159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 수출 불가하나 상황허가 취득시 수출 가능

* 상황허가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

- (통제품목 확인 방법) 통제품목 리스트 HSK 연계표*에서 ①HS 6단위로 통제되는 244번~1,159번에 해당 HS Code가 있으면 상황허가 대상, ②기술·사양 품목으로 통제되는 1~243번에 해당 HS Code가 있으면 상세사양 확인 후 해당이면 상황허가 대상
 -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공지사항 - 「제33차 고시개정 [별표 2의2]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HSK 연계표 개정본 배포(2.24)」
 - **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 “상황허가 대상품목 전문판정” 신청 필요

- (유의사항) 통제품목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래처가 우려 거래자에 해당되거나 의심징후가 있을 경우 상황허가 신청 필요

[그림기] 상황허가 프로세스



* 자료 : 전략물자관리원

- (수출통제 확대) 우리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및 러-북 군사협력 강화('24.6)에 따라 대러시아 수출통제품목을 1402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4.6.20)

□ 금융·에너지 등 분야에서 서방국 제재에 동참

○ (금융 분야) 서방사회의 제재에 맞춰 우리 정부는 러시아 주요은행 (Sberbank, VTB, Bank, Bank Rossiya, Novikom 등)과의 거래를 중단, 미국의 2차 제재를 염려해 각 금융기관들에게도 제재리스트에 있는 러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길 권고

- 거래 상대방과 품목이 제재 대상인지 체크하고 의심정황을 확인하는 등 원칙적 프로세스가 부담되어 러시아발 송금을 수취거부하는 은행들이 많아지고 있는 중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대금수취 애로 심화

○ (에너지 분야) 한국 발전 공기업은 러시아산 석탄 수입량을 '22년도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 언급('23.9), 주요 조선 기업들이 미 제재 러 기업에 LNG 운반선·쇄빙선 납품을 연기하는 등 직·간접적인 영향

- '23년 대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량은 전년 대비 28.6% 감소한 10억 6천만 달러(중량기준으로 15.7% 감소한 170만 톤), 유연탄과 무연탄의 수입도 전년 대비 각각 21.3%, 29.1% 감소

2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구조 변화(2023년)

□ 제재 여파로 총 수출액은 하락세 지속

- (총 수출액) 산업기계·자동차·철강제품 등이 포함된 수출통제품목 확대 (2차, '23.4) 불구, △서방제품 철수 따른 공백 대체 △비제재 품목 수출 증가 등으로 '23년 수출은 소폭 하락한 61억 3천만 달러(△3.1%) 기록, 한국제품의 러시아 수입시장 점유율은 2.4%('22)→ 2.2%('23) 소폭 감소
 - 철구조물·건설중장비·운반하역기계 등 대러시아 수출 주요 품목이 포함된 3차 수출통제품목 확대 영향('24.2)에 따라 '24.1~4월 대러시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9% 감소한 17억 9천만 달러

[2021~2024.3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1-3
수출액 (증감율)	99.8(+44.6%)	63.3(△36.6%)	61.3(△3.1%)	17.9(△25.9%)

*자료: 한국무역협회

□ 비제재 품목은 수출 증가, 제재 품목은 수출통제 영향 지속

- (비제재 품목) 화장품(4.1억달러, +42%), 윤활유(3억달러, +31%), 의료용기기 (1.5억달러, +17%), 타이어(1억달러, +28%) 등 비제재 품목 수출 증가
 - 지정학적 리스크 · 물류/결제 애로 · 비즈니스 심리 악화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한 서방산의 공급 감소와 그에 따른 공백이 우리 비제재 품목의 수출 증가로 연결

○ (제재 품목) 오랜기간 대러시아 수출 강세 품목이었던 자동차·자동차 부품·철구조물·합성수지·건설중장비 등은 제재 영향 불가피

- 자동차(6.4억달러, △27%), 자동차부품(3.6억달러, △31%), 합성수지(3억달러, △32%) 감소, 건설중장비는 3차 수출 제재로 '24년 실적 부진 예상

[주요 비제재 품목의 대러시아 수출 증가]

(단위: 백만 달러)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1-3
화장품	290(+19.2%)	287(△1.1%)	408(+42.2%)	81(△14.8%)
유탄유	106(+60.2%)	229(+116.7%)	301(+31.2%)	54(△47.6%)
의료용기기	101(+39.3%)	130(+28.2%)	151(+16.8%)	34(+41.3%)
타이어	110(+14.6%)	83(△25.0%)	106(+27.7%)	36(+29.7%)
김	26(+56.2%)	31(+18.0%)	44(+44.4%)	16(+48.1%)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MPI 4단위 기준

[주요 제재 품목의 대러시아 수출 감소]

(단위: 백만 달러)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1-3
자동차	2,549(+71.7%)	883(△65.4%)	641(△27.3%)	164(△28.6%)
자동차부품	1,509(+37.5%)	517(△65.7%)	358(△30.9%)	69(△45.8%)
철구조물	487(+2,188.4%)	602(+23.5%)	587(△2.5%)	5(+2.6%)
합성수지	476(+88.6%)	440(△7.7%)	300(△31.8%)	86(+3.1%)
건설중장비	425(+99.9%)	403(△5.2%)	439(+8.8%)	62(△56.7%)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MPI 4단위 기준

□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증가

○ (수출주체) 대러시아 전체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23년 중소기업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30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4% 증가, 대러시아 전체 수출액 중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은 42.7%('22)→50.4%('23)

* 중소기업의 대러시아 수출액(억 달러) 27.6('21) → 27.0('22) → 30.9('23)

- 화장품·운반하역기계('23년에는 비제재)·중고차(5만 달러 미만) 등 중소기업이 주로 취급하는 비제재 품목 위주 수출 증가, 자동차(신차)·스마트폰·전자제품 등 대기업 품목은 수출통제의 영향 혹은 글로벌 평판*관리를 위한 자발적 수출 중단조치로 수출 감소

* 2,000cc 미만 자동차, 일반 소비자 통신 제품 등은 비제재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유럽 내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대러시아 수출을 중단




[2023년 중소기업의 대러시아 수출]

(단위: 억 달러)

구분	수출액	증감율
자동차	7.5	+6.6%
자동차부품	1.9	+20.6%
화장품	3.5	+38.9%
운반하역기계	1.5	+87.8%
금속공작기계	0.7	+112.1%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3년 중소기업 수출, 1,118억달러 기록(△2.3%)」('24.1.31.)

참고	품목별 러시아 진출 현황
-----------	----------------------

구분	업종(분야)	경영현황
호 조 	식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진출기업 (면류·파이류·김 등) 매출 우상향 * 김(44%↑), 커피(21%↑), 면류(25%↑) 수출 호조 ('23년)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화장품류(스켄케어·선크림 등) · 샴푸류 등 수출 우상향 * 화장품 수출 40%↑, 2.9억 달러 → 4.1억 달러 ('23년)
	유탄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방제품 철수로 매출상승 (차량용 유탄유 제재 미포함) * 유탄유 수출 31%↑, 2.3억 달러 → 3억 달러 ('23년)
	타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방제품 철수(알·프·독)로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등극 * 한국산 타이어 브랜드 매출 우상향
	ATM·보일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방제품 철수(마·독)로 주요 거래선 늘며 매출 상승 • 현지 진출기업 매출 우상향, 동종 업계 후발 기업도 진출확대 중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우 사태이후 간소화된 인증절차, 서방제품 철수로 호조 * 의료기기 수출 17%↑, 1.3억 달러 → 1.5억 달러 ('23년)
현행 유지·지속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제품 통제품목에 포함, 러 로컬기업의 성장으로 경쟁력 제고 필요, 러→한 대금 송금에로 다대
	물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스토치니항 운영사, Transcontainer 제재로 물류 난항, 대러 비즈니스 심리악화로 물동량 감소
	건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중장비(굴삭기, 휠로더 등) 대러 전통 수출 강제 품목으로 수출 지속, 3차 제재 품목에 포함('24.2)되어 '24년 실적 감소 예상
침 체 	자 원 수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자원 공기업들의 대러 에너지 의존도 감축 및 대형 상사들의 대러시아 비즈니스 심리 악화로 실적 부진
	조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파트너(즈베즈다 조선소 등)('24.4) 제재로 예상 실적보다 부진 • 다수 품목 통제품목으로 '24년 침체 예상
	자 동 차 자동차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업 공장 매각('24.1) 후 다수 협력사들은 AGR 그룹(공장 매수자)에 납품 지속하고있으나 '24년 전망 불투명
	전 자 제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업 공장 가동 중단 상황 지속 • A/S 서비스 지속, 딜러사들의 병행수입으로 유럽발 등 일부 공급만 유지
기 타	금 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국적은행, 주요 고객사 철수로 일부지점 폐쇄 및 러→한 USD 송금 범위 축소, 신규 계좌 개설 보수적 검토
	공공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철도 공기관, 고객군 및 사업범위 감소 • 관광 공기관, 비제재 영역으로서 관광 유치 기능 유지

3 대러시아 수출 고려사항

□ 공백 발생시장에 대한 검토

- (품목별 상황 진단) ①서방기업의 공급 감소 현황 케이스별* 상황 진단
②중국 기업의 진출 정도 ③러 정부의 동 산업 육성 의지와 수입
규제 강도 ④상황허가품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현지 생산 중단 여부, 본사 차원의 공급 원천 중단 등

- 서방 제품의 공급이 감소했고 러시아의 자체 생산과 중국 기업들의
진출이 비교적 부진한 품목(윤활유·의료기기·ATM·보일러 등)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검토*와 △금융·물류 애로 등 직면한 문제 해결

* 과거 비슷한 제품을 취급했던 유통사 위주 컨택

- 중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며 러시아 정부의 수입대체 의지가 뚜렷한
품목(자동차·자동차부품·전자제품·건설중장비 등)에서는 △기진출 중국기업과의
협력점을 모색하거나 △A/S부품·2000cc미만 자동차 등 비제재 품목
취급을 검토하는 등 제도 범위 내 수출 가능성 모색

- 이 외 한국의 전통적 대러시아 수출강세 품목은 아니지만 수요가 높고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신규 유망 품목(동물사료·신발·의류 등)에서는
△유망 세부 품목의 선정과 △인증·통관 등 초기 진입을 위한
대한민국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

* 단, 파트너의 제재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수출유지 품목의 수출 지속 방안

○ (걸림돌 제거) 대러시아 수출 3대 애로(결제·물류·가격경쟁력) 해결

- 러→한 대금 송금이 가능한 러시아 내 비제재 은행 및 외국계 은행과의 거래 사전 준비 필요(바이어의 송금가능 은행 내 신규 계좌 개설, 한국 내 러시아발 송금의 수취가 가능한 은행 내 수취 계좌 개설 등)

- 러시아 항구 및 러 국적 컨테이너 공급사 등이 제재대상이 될 것을 대비하여 대러시아 운송 루트가 다양하고 현지 협력사를 통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업체의 선정이 중요

* 극동러시아 물동량 1위 보스포츠키항 터미널 운영사 및 러시아 최대 컨테이너 공급사 'Transcontainer' 제재 리스트 등재('24.2)

-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200유로 내 해외직구 면세 및 인증불요) △소품종 소량이라 할 지라도 소매점 위주의 공략 검토가 필요함

○ (품목 다변화) 기확보된 유통 기반과 소비자 선호도를 활용하여 관련 제품으로의 수출 점진적 확산 추진

* (예시) 기초 화장품류 → 향수·립스틱, 임플란트 → 치과의자·의료기기 소득기, 윤활유·타이어 → 브레이크 패드·서스펜션 등 기타 자동차 소모품류

○ (한류 믹스 마케팅) 소비층이 젊은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류 분야는 K-Pop과 K-Drama를 접목한 한류 믹스 마케팅이 매우 효과적

* 모스크바 한류는 유럽 내 최고 수준으로 한류 믹스 마케팅은 소비자 호감도 상승과 경쟁제품(중국 등)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데 효율적

□ 수출대체 시장 모색 (제재품목 제외)

- (주변국의 상품 수입증가) 금융제재·기업제재·대리 비즈니스 심리 악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주변국인 중앙아·튀르키예·UAE의 상품 수입이 가시적으로 증가한 바, EAEU 및 주변국 통합 진출전략 구성
 - 러시아 주요 수입 기업 또한 카자흐스탄·UAE 중심으로 본국의 금융·물류 기능을 이전하고 있음
- (수출 대체 시장) 카자흐스탄은 CIS의 새로운 공급 기지로서 자동차·식품 분야에서 원부자재 수입 수요가 다대하고, 그 확산 효과에 의해 주변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에서도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참고

대러시아 진출기업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슈

○ (결제통화) USD·CNY 결제 애로* 속에서 다수 러시아 기업이 대안으로 RUB 결제를 제안 중으로, RUB 송금시 비교적 높은 송금·환전 수수료 (3-4%) 및 환리스크를 공급가에 반영할 필요

* 일부 비제재 및 외국계 은행 통해 USD·CNY 송금가능하지만 대부분 신규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고 미국의 2차제재 확대에 따라 대다수 은행 정책이 보수적으로 변화 중

○ (라벨링 규정) '19년부터 위조품의 확산을 방지하고 원산지·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체스니 즈낙(Chestny Znak)* 제도의 적용 의무 대상 품목이 식음료를 넘어 일반 소비재(화장품·장난감·의류 등)로 확대 중

* QR코드와 유사한 형태로 EAEU 내 유통되는 모든 품목(적용품목)에 의무 부착

-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스티커를 개별 포장 단위 전(全)량에 부착 의무,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행정 애로가 다대하며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중 (수작업으로 부착 혹은 포장 단계에서 생산설비에 반영 필요)

○ (상표권 이슈) 러 유통사 명의로 러시아 내 상표권 등록을 진행할 경우 추후 이슈(거래선 변경·마진조정 등)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되므로, 러시아 내 상표권 등록은 한국 제조사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

* 러시아 내 법인 설립 없이 외국 제조사(개인포함) 자격으로도 등록 가능

○ (대러시아 제재 '불가항력' 인정 여부) 점진적 대러시아 제재 확대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는 거래 대상자나 품목이 제재 대상이 아니었지만 납품 시점에 제재 대상에 등재될 경우를 대비해 '제재 리스트의 자동 갱신' 조건 등을 불가항력 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음

4 품목별 대러시아 수출 고려사항

※ 품목 다수가 수출제한 리스트에 속해있고, 대러시아 투자 환경 악화로 인해 투자·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나, 포스트 러우 사태를 미리 대비하고 추후 생겨날 수 있는 시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부 수출 제한품목을 혼용하여 서술함

□ 자동차 유탄유

- (현황분석) 러시아 전체 유탄유 수입액 9억 2천만 달러 중 대한민국 수입은 3억 달러로 33%(1위)(HS 2710.19 기준), 한국의 대러 수출 2위 품목(HS 6단위 기준), 글로벌브랜드(Michelin, Shell 등) 공급 감소와 러 정유사 생산 확대 속, 저가 중국·튀르키예산, 프리미엄급 한국·일본산 경합
- (고려사항) 러시아 자체 브랜드 생산 희망 기업 다수로 △OEM 협력 확대*, △신규 브랜드 동시다발적 성장 및 유사품 성행 속 정품 인증 시스템 구축 (QR 모바일 인증 시스템 등)

* 한국 내 공장에서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생산 후 러시아로 재수출

□ 화장품

- (현황분석) 러 전체 수입액 15억 4천만 달러 중 대한민국 수입 3억 달러로 수입시장 점유 1위(19%), 한국의 대러 수출 4위 품목(HS 6단위 기준), 공급 감소된 글로벌 브랜드(Loreal, Lancome 등) 대체 수요가 품질 검증된 한국산으로 이동
- * 러 화장품 유통 Big 3사 (Goldapple, Letoile, Rip Gosh) '18년부터 한국산 취급 지속
- (고려사항) △품목 다변화(기초화장품→립스틱·향수 등 확산) 및 △대표 브랜드 육성('가성비' 이미지를 넘어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필요), △바이럴 마케팅 지속 (SNS 및 한류 믹스 활용) 추진

□ 식품

- (현황분석) 러시아의 전체 수입 18억 8천만 달러 중 대한민국 수입 4천 3백만 달러로 수입시장 점유율 2.3%(7위)(HS 2106.90 기준), 초코파이·라면·음료류 등 한국식품이 러 토종 브랜드로 인식될 수준으로 한국 진출기업 매출 우상향

* 김(+44%), 커피(+21%), 면류(+25%) 중심 '23년 대러 수출 증가세 주도

- (고려사항) △대러수출 3대 애로(결제·물류·가격) 해소로 '편리한 결제·원활한 운송·저렴한 가격' 이점을 보유한 중국산과 경쟁 필요, △'의무 라벨링' 제도의 효과적 소화 가능한 현지 파트너사 모색

□ 치과용품

- (현황분석) 러 전체 수입 2억 6천만 달러 중 대한민국 수입 1억 1천만 달러로 42%(1위)(HS 9021.29 기준),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 9위 품목 (HS 6단위 기준), 자국산 경쟁력 부재로 러시아는 치과용품의 80%를 수입, 한국산은 고품질(내구성, 저알레지 등) 및 중가격대 경쟁력으로 러 시장 주도

- (고려사항) △품목 다변화(기존 네트워크 활용, 의사 대상 소독장비·치과의자 등 마케팅), △주변국 진출 확대 병행

* 아르메니아·조지아 등은 경제협력 수요가 높고, 러시아와 유사한 시장구조·상거래 관행 지닌 시장

□ 자동차

- (현황분석) 러시아의 전체 수입 66억 7천만 달러 중 대한민국 수입 2억 4천만 달러로 3.6%(3위)(HS 8703.23 기준), 한→러 수출 전년 대비 44% 급감, 글로벌 제조사 철수 및 현지 생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중국산 대거 수입 및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으로 생산기지 이동

*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통제품목 확대(3차,'24.2)로 2,000cc 초과 자동차 대러 수출 제한

- (고려사항) △2,000cc 이하 차량 집중(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2,000cc 이하는 비제재)*, △새로운 생산거점인 카자흐·우즈베크에서의 부품 소싱 수요에 대응

* 2,000cc 이하라도 일부 차량은 기술·품목 사양에 의해 제한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기아차, 우즈베키스탄 현지 협력사와 타슈켄트 내 CKD 공장 기공('24.3)

□ 자동차 부품

- (현황분석) 러시아의 전체 수입 9억 달러 중 대한민국 수입 1억 9천만 달러로 21%(2위)(HS 8708.99 기준), 한→러 수출 전년대비 30.8% 급감, 자동차 부품의 경쟁구도는 자동차 공급망 재편과 유사한 형태로 재편됐으나, A/S 제품은 공급 부족 현상 발생

* Cherry·Geely 외 중국 브랜드는, 러시아어 카탈로그가 없고, 체계적인 A/S 시스템 부재 (Vedomosti 3.19, Autonews 2.9)⁴¹⁾

*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통제품목 확대(3차,'24.2)로 주요 HS Code(8708.99, 자동차부품(기타)) 수출 제한

- (고려사항) △주요 HS Code(8708.99) 외 범용·호환성이 큰 브레이크 패드·서스펜션 등 품목에 집중, △러시아어 카탈로그 제작 및 A/S 품목 부족 현상 겪는 딜러사에 집중 마케팅

41)

□ 건설중장비

- (현황분석) 러시아의 전체 수입 15억 5천만 달러 중 대한민국 수입 3억 달러로 19%(2위)(HS 8429.52 기준), 한→러 수출 58.7% 급감('24.1-2월), 러우 사태 이후 Out-bound 투자가 러시아 국내 인프라·건설 투자로 전환되며 건설업 호황, 건설 중장비 수요 급증, 중국산의 대거 유입
 - * '22년 중국 내 건설업 버블 이후, 과다 생산된 중장비들이 덤핑 가격으로 러시아에 유입되어, 사태 이전 10% 미만 중국산 점유율은 30%('22년), 50%('23년)까지 확대
 - *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대부분 '굴삭기와 휠로더', 주요 라인업들이 통제 품목에 추가되어 '24년 침체 예상
- (고려사항) △비제재 A/S제품 납품 검토 (러시아 유통사 및 현지 진출 우리 제조사 대상) △시장에서 검증되고 범용성 높은 한국산 유탄유 및 탈착형 부분품과 최근 5년 수입된 부품 중 고장확률 높은 워런티 기간(2년) 지난 제품 집중
 - * 장비의 1일 Loss가 매우 큰 중장비 특성상 A/S부품 판매는 Stock 형태로 운영되며, 신속한 A/S 여부가 업계의 경쟁력을 좌지우지

□ 의약품

- (현황분석) 러시아의 전체 수입 159억 달러 중 대한민국 수입 4.5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46.9% 증가(HS 3004.90 기준), 의약품은 최근 3년 연속 러 전체 수입 품목 1위, 러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수입 제품 비중 55%
 - * 미국, 유럽 등 일부 서방 기업들의 시장 철수가 있었으나 비제재 품목에 해당돼 독일, 스위스 등 유럽에서 수입 지속
- (고려사항) △독일의 공급이 감소한 품목(근 이완제 등) 선정, △까다로운 현지 인증 절차 경험이 있는 파트너사 물색, △비교적 인증이 용이한 타 EAEU(우즈베크·키르기스)를 통한 공급 루트 모색
 - * 의약품의 경우 주문자 상표 방식이 선호되며, 러 파트너사에서 패키징과 표기 언어를 현지식으로 바꿔줄 것을 자주 요구

□ 동물사료

- (현황분석) 러시아의 전체 수입 13억 2천만 달러, 한→러 수출액 전년 대비 35.4% 증가(67만달러)(HS 2309 기준), 러시아 시장은 인구 72% 반려동물 보유 및 시장규모 37억 달러로 미국·브라질과 함께 3대 동물사료 시장으로 평가

* 서방 공급 지속으로 '시장 공백 효과' 제한적이나 △정치적 이유로 수입 금지되는 사례 발생 △현지 생산 기업의 경우 향미제 등 첨가물 수급 애로로 품질 저하 → 틈새시장 발생

- (고려사항) △시장 규모가 큰 고양이 사료를 우선 타겟하고 천연성분 고단백 등 성분 우수 사료 론칭, △품목 특성상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유통사(Chetyre Lapy, Miratorg 등) 우선 공략, △제조사 공장인증(1년이상) 및 제품인증(2-3개월) 장시간 소요되므로 유사 경험 보유 파트너사 모색

□ 신발

- (현황분석) '24.1-2월 기준 러시아의 전체 수입 2.6억 달러, 한→러 수출 전년동기비 417.3% 증가, 나이키·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철수로 중국·튀르키예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병행수입 및 신규 브랜드 진입

- (고려사항)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품목 특성상 △제 3국(베트남 등) 수출*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검토, △신규 진출 한국 대기업 브랜드에 납품하는 방식 검토

* 2015년 EAEU(러시아 등 5개국)-베트남 간 FTA 체결로 러시아의 베트남 신발(정품 가죽 50% 이상 사용) 수입 시 관세 면제(기본관세: 10%, 단 켈레당 최소 1.8유로)

* Zara, H&M, Uniqlo 등 외국기업 철수 후 경쟁구도 재편 시장으로 한국 대기업 의류 브랜드 2개사 진출 성공('24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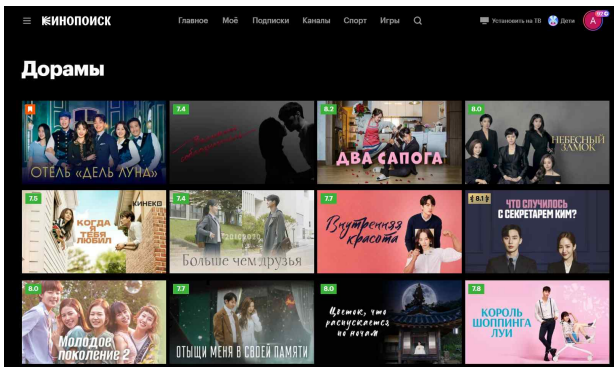
□ 문화콘텐츠

○ (현황분석) Netflix, Disney 등 서방 콘텐츠 공급 중단과 한류가 맞물려, 영화·드라마·게임·만화 등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 기회 고조, 높은 완성도와 짜임새있는 구조로 러 3대 플랫폼(Kinopoisk, Okko, ivi) 모두 K-콘텐츠 취급 확대

○ (고려사항) △패키지 방식보다는 단일 작품 판매 방식이 유리(현지 유력 OTT플랫폼은 인기있는 소수의 작품만 선별하여 수입 희망), △유력 OTT플랫폼에 외국 콘텐츠를 납품하는 콘텐츠 유통사 위주 컨택, △주요 콘텐츠 박람회 활용*

* CIS Wold Content Market 2024('24.3)에서 한국산 26개 콘텐츠(120만 달러) 수출 성공, 적당한 가격에 높은 품질로 평가

[그림10] Kinopoisk 내 한국콘텐츠



[그림11] CIS Wold Content Market 2024



*자료: Kinopoisk 홈페이지, World Content Market 홈페이지

IV

요약 및 시사점

1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러시아의 교역구조의 변화

- 미국 중심의 대러시아 제재는 수위를 더 해가는 중
 - (에너지 및 자원) 유가상한제 모니터링 강화, 러産 니켈·구리·알루미늄 거래 금지, 러産 우라늄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Arctic LNG-2 가스전 제재 등
 - (금융) 제3국 금융기관 제재 지속 및 모스크바(및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래소 제재, 동결 러시아 자산의 이자 수익 활용 대우크라 재정 지원 등
 - (물류) 주요 항구(Vostochny Port 운영사 등)·조선소(Zvezda 등)·해운사(Sovcomflot 등) 제재 지속 및 제3국 선박 2차 제재 지속
 - (수출입) 미국 및 일본·EU·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품목 강화, 이중용도물품의 대러시아 우회 유입 경로 지속 차단
 - * 서방은 군사적으로도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서방에 의해 지원된 무기를 활용하여 러시아 본토 내 군사시설 타격을 허용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 유지 (교전지역限)

- 제재 극복 위한 러시아의 맞대응
 - (러시아의 대응) 대체 수출 시장으로 에너지류 공급전환(중국·인도·튀르키예), 환율방어(기준금리인상·외화수출대금 의무매각 등), 물류노선 다변화 노력(국제남북운송회랑·북극항로 개발), 외국기업 경영권 제한 등
 - (경제성장) 경제성장률 +3.6%(2023), +5.4%(2024.1분기), 우회·병행수입으로 수입물품 공급 안정화, 중국·자국 기업 투자 유치로 국내 생산 재가동, 비교적 양호한 정부 재정수지('23년 3.2조 루블 적자, GDP 1.9% 규모)
 - * 높은 인플레이션('23년, 7.4%), 인력 부족 현상('23년 실업률 3.2%)은 경제 하방 요인

□ 변화된 러시아의 대외 교역구조

○ (BRICS 간 교역 강화) 2023년 러시아의 대BRICS(러시아 제외) 교역은 2,940억으로 러시아 전체 교역의 41.4% 수준이며, BRICS 국가 간 달러 결제 비중은 28.8%까지 증가

* 2023년 러시아-브라질 교역액, 2021년 대비 55%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인 113억 달러 기록

○ (교역구조 변화) 2023년 러시아의 각 국별 교역은 러-우 사태 이전 대비 미국(△86%), 일본(△52%), EU(△67%), 영국(△97%)과는 감소한 반면, 중국(+63%), 인도(+458%), 튀르키예(+63%), 브라질(+55%)과는 증가

□ 러-우 사태 장기화와 제재의 해제

○ (대러 제재 장기화) 안보 위협을 느낀 NATO는 러시아의 서진을 막기 위한 △에너지·금융제재(군비 축적 견제) △이중용도물품 수출제한(군사력 제한) 등 현 수준의 제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

-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란의 사례를 들어 정치적 타협이 즉각적인 대러 제재의 해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 존재⁴²⁾

○ (제재 장기화에 대한 러시아 관점) 금융제재 외 어느정도 대안책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는 러시아에게 금융제재의 해제는 종전을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이 될 것

- 미국은 G7 정상회담(24.6) 계기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 기조를 재차 밝혔고, 중국마저 기조에 동참하기 시작하며⁴³⁾ 러시아 금융계의 국제적 고립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이란을 수십년째 제재하고 있으며,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시에도 미·유럽이 부과한 대러시아 제재 중 단기간 해제된 건은 극소수

42) “Когда закончатся антироссийские санкции,” https://www.alta.ru/external_news/109512/, (검색일 : 2024년 6월 21일)

43) “«Дочка» Bank of China свернет операции с подсанкционными банками России,” https://www.rbc.ru/business/24/06/2024/6678beb09a794744cd5ffc2a?from=from_main_6, (검색일: 2024년 6월 25일)

2

포스트 러-우 사태와 러시아 시장의 전략적 가치

- 신(新)통상질서 형성 과도기로 국익 관점의 대러관계 재조명
 - (경제 블록화) 미국·EU를 중심으로한 경제·통상 환경에 러시아는 BRICS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 강화로 대응, 중국 또한 상하이 협력기구(SCO)의 확장으로 통상질서의 다극화 진행 중
 - (대러시아 비우호국 관점) 반(反)미국·EU·일본 세력의 확장을 견제 하면서도 각 국의 실리적 관점에 맞게 러시아 시장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해 나갈 것이고, 포스트 러-우 사태를 대비한 대러 관계 조절 중
 - * EU·일본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코카콜라·스타벅스가 러시아 내 상표권 연장을 신청하는 등(24.6) 글로벌 기업들도 포스트 러-우 사태를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음
 - (대러시아 우호국 관점) 서방의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호국들은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발전해 나갈 것이며, 서방과의 선을 넘지 않는 균형을 유지 할 것
 - * 중국·EAEU에게 러시아는 거대한 상품 수출 시장이자 지리적으로 가까운 에너지 공급국
 - * 인도·튀르키예에게 러시아는 제3국 에너지류 중개 수출을 위한 에너지 공급국
 - (러시아 관점) 에너지류 대체 수출시장이자 상품 우회 공급 역할을 하는 우호국들의 역할을 활용하면서도 △수입대체화의 조기 실현, △북극항로 개발 등 독자 물류노선 확보, △동북아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자국 경제 안정화와 제재 대응의 기틀을 확대해 나갈 것

□ 포스트 러-우 사태 속 러시아 시장의 전략적 가치 활용

- (수출 시장으로서의 가치) 1.4억 인구(EAEU 전체 1.9억 명) 및 구매력 평가(PPP) 세계 6위의 거대 시장으로, 과거 자동차·전자·건설·조선 등 기간 산업 진출이 활발했었고,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분야에서는 여전히 진출이 활발한 시장으로 사태 종식 이후 수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

* 러-우사태 이전('21년)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교역국(273억불)이자 12대 수출시장(100억불)

- (러시아의 대(對)중국 의존도 강화 속 한국의 역할) 러시아에게 중국은 정치·안보 분야 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최대 에너지 수출시장이자 상품 공급국으로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 중

- 러시아 관점에서 △극동러시아 개발 △북극항로 활성화 △수입대체화 실현을 위해 한국은 중요한 국가

□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동참 속 경제협력 관계 복원 기대

- (경제협력 관계) 한국은 대러시아 수출통제품목 확대, 금융제재 등 미국 중심의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대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계획 없음'을 확인하며, 러시아를 '경제적 이익을 함께 추구할 관계'로 언급

*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24.5.9)

- (비우호국 중 최우호국) 러시아 또한 한국을 '비우호국 중 최우호국'으로 지칭, 극소수 케이스를 제외하고 한국에 대한 별도 보복조치 시행치 않으며, 푸틴은 경험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시사⁴⁴⁾

- (변수) 다만, 최근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그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24.6)은 한반도 안보와 한-러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44) "РФ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развитии отношений с Южной Кореей."
<https://www.interfax.ru/spief2024/965168>. (검색일: 2024년 6월 19일)

- 포스트 러-우 사태 대비 대러시아 협력점에 맞춘 실리 추구
 - (비제재 품목 수출강화) Ⅲ에서 언급된 수출호조 품목* 외 의약품, 의류·신발류, 콘텐츠, 화학제품(일부제재) 등 수요가 높은 비제재 영역에서의 수출 증진이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실현돼야 할 것
 - * 화장품, 윤활유, 식품, 타이어, 건설중장비, 의료기기 등
 -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된 자동차·가전 분야에서는 OEM 수주 등을 통한 △생산기반의 유지, △충실한 A/S의 지속(기존 및 병행수입 물량),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협력사들의 비즈니스 유지 필요
 - (서비스 분야 수출강화) 콘텐츠·게임·웹툰 등은 비제재 영역이면서 서방의 공급 감소가 관찰되는 분야로 진출이 유망하며, Engineering (설계·감리) 위주의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
 - (북극항로 개발) 각 종 물류 제재, 흑해 이용 제한, 대유럽 육로 차단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독자 물류노선 개발이 절실한 러시아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쇄빙선·운반선 건조 기술을 지닌 한국은 매력적인 파트너
 - (공급망 다변화) 러시아산 석탄은 △지리적 이점과 △소규모 단위 수입이 가능해 전통적 대러시아 수입 품목이며, 최근 최대 수요처인 중국·인도의 수입 감소로 가격 경쟁력 또한 제고
 - * '23년 한국의 대러 무연탄 수입액은 4.6억 달러로, 러시아는 호주를 제치고 1위 공급국
 - * '23년 한국의 대러 유연탄 수입액은 40억 달러로, 러시아는 호주 다음 2위 공급국
 - 또한, 러시아에는 희토류·니켈·마그네슘·철광석 등 현대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류들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러-우 사태 이후 자원 개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으로, 공급망 다변화 관점에서 잠재적 활용 가치 존재

-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EU와 일본 또한 대러시아 가스 수입 유지 중으로 한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극동러 최대 가스전 ‘사할린-2’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배제할 필요 없음
 - * 다만, 가스전 운영사인 가스프롬에 대한 제재 등 관련 제재의 완화가 선행 조건
 - * '23년 한국의 대러 천연가스 수입은 10.6억 달러로, 호주·카타르 등 다음 7위 공급국

- 계·명태 등 수산물은 전통적 대러시아 수입 품목으로 △양국 간 수산물 쿼터 연간 협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소비자의 일본산 기피 현상과 관련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23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 상위 20개 품목 중 7개가 수산물, 대러 전체 수입액의 11.7%

/끝/

작 성 자

- 모스크바 무역관 황중석
- 구미 CIS팀 박지원

러-우 사태 3년차, 변화된 러시아의 교역구조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24-021

발행일	2024년 7월 8일
발행인	유정열
발행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13
전화	1600-7119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구미CIS팀 (02-3460-7653)

• ISBN: 979-11-402-1001-5(9532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